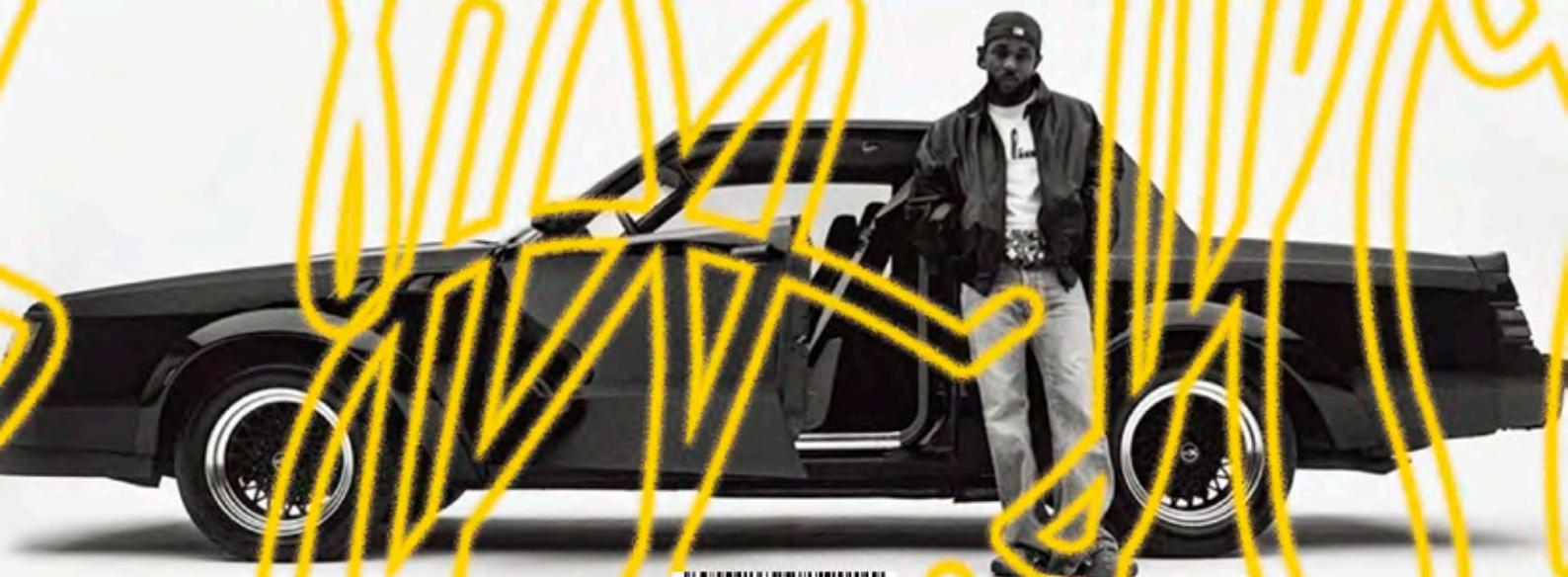


ext KHL

18



卷

三



月

三

日



Moving Day - André 3000

2024.11.22 / 자카

안드레 3000(André 3000)이 갑작스러운 솔로 프로젝트 발매를 알리며, 오직 플루트 하나만을 들고 앰비언트/뉴에이지 음반인 <New Blue Sun>을 발표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2024년 11월 또 한 번,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새로운 EP인 <Moving Day>를 발표한다. 앨범은 총 3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끔 물흐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는데, <New Blue Sun>만큼의 번뜩이는 지점이나 특별한 변화들을 찾아볼 수 없어 전작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상적인 지점인, <New Blue Sun>에 포함되지 못한 트랙 "Tunnels of Egypt"의 경우 훨씬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수많은 악기들이 미묘하게 배치되어 한 순간에 일제히 바스러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린다. 종합적으로 <Moving Day>는 아쉽게도 배경음악에 그치는 작품이다. 본작은 <New Blue Sun>만큼의 인상적인 순간들도, 초월적인 경험들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부 힙합 씬의 전설이 마이크가 아닌 플루트를 들고 솔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여타모로 신기하고 또 인상적이기에... 앞으로 그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만 같다.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 안드레 3000만의 매력이니까.



Fauxllennium - George Clinton & TV Girl

2024.12.02 / de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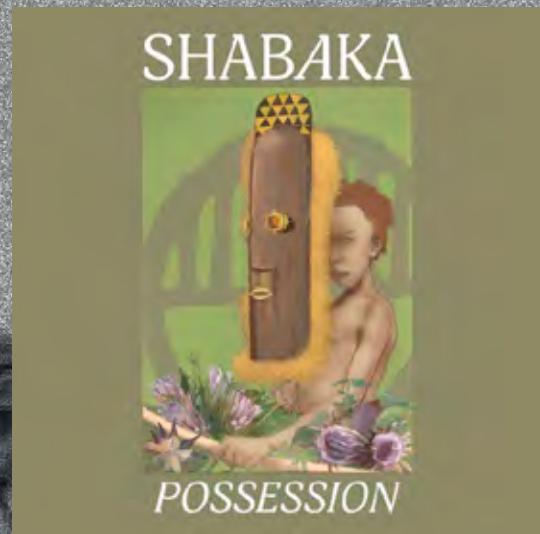
모조를 뜻하는 'faux'와 천 년을 의미하는 'millennium'을 더한 합성어 <Fauxllennium>. 이는 노스탤지어에 진심인 조지 클랜턴과 밴드 티비 걸(TV Girl)의 의기투합을 표현할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닐까? 엘튼 존을 연상케 하는 청량한 피아노 오프닝과 함께 클랜턴의 일렁이는 신스와 Brad Petering의 보컬이 얹어진 "Summer 2000 Baby". 이와는 달리 나른한 여름날을 연출하는 멜로디에 여유로움을 더하는 봉고 드럼이 특징인 "Take a Trip". 이 두 선공개 트랙만으로 앨범의 목적은 정립된다: 2000년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레트로에 익숙해져서일까? 이들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Y2K 공간은 눈물나도록 반갑다. "Everything Blue"의 트립합 드럼, "Butterflies"의 EDM 베이스라인은 반복적임에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 아니, 반복적이라면 또 어떤가? "Fauxllennium"에서 이야기하듯, 사람들은 늘 삶의 이유나 탓할 대상을 요구하지만, 클랜턴은 그저 '나나나'를 반복해 외치며 즐기고 싶을 뿐이다. 이 두 아티스트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데에는 큰 사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복잡한 세상에 골머리를 앓는 우리를 데리고 모든 것이 단순했던 2000년대의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27분 22초만이라도 머리를 굴리는 대신 함께 흔드는 것. 그것이 전부일 뿐이다.



Maybe In Nirvana - Smino

2024.12.06 / moogsick

짧지만 다채롭다. 2년 전 <Luv 4 Rent>로 당당히 커리어 하이를 간신히 했던 스미노(Smino)의 신보는 거창한 타이틀과는 달리 보다 빠른 호흡으로 자신의 장점을 훑는다. 'Dear Grandma, we made Coachella / Dear Grammy, we made it to Grammy (할머니께, 우리 코첼라에 섰어요 / 그 래미에게, 우리 후보에 올랐다고)'로 시작하는 감미로운 스웨깅의 "Dear Fren", Kenny Beats표 칠한 비트의 "Ready Set Goku"로 잽싸게 낙천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남은 건 이 물결에 올라타 유유히 유영하는 일뿐. 후반부 Bun B와 reggie의 차진 래핑, Thundercat의 베이스를 가미한 "Ms. Joyce"와 "Hoe-nouns"로 재치 있게 방향을 전환하며 끝을 맺기까지 더할 나위 없이 간결하다. 허나 일말의 아쉬움 역시 존재한다. 러닝타임을 압축적으로 가져간 탓에 정작 스미노 본인의 퍼포먼스는 전작의 "Matinee", "Pudgy"와 같은 트랙에 비해 성기다. 물론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부드러운 멜로딕 랩-싱잉이지만 이미 그 이상을 보여준 아티스트에게 어디 이 정도로 만족하랴. 허나 애초에 <Luv 4 Rent>의 디렉스로 기획되었던 만큼 연속성 면에서는 합격점을 부여할 만한 작품이기에, 그가 다시 한번 한계를 돌파하고 진정한 너바나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본다.



Possession - Shabaka

2024.12.06 / 자카

샤바카(Shabaka)의 새로운 EP <Possession>은 그의 전작 <Perceive Its Beauty, Acknowledge Its Grace>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운드와 그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작이 넓은 공간감과 함께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중심으로 한 앰비언트 재즈를 아름답게 풀어내었다면, <Possession>은 더욱 짧고 내성적이며 집중적인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니멀한 구성과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사운드를 더욱 더 밀도있게 채워나가는데, 이 때문에 각 곡에서의 긴장감과 불안정성에 강하게 두각을 보인다. 또한 전작의 다양한 협업과 비슷하게 본작 역시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의 협업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전작에 비해 더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billy woods의 랩과 E L U C I D의 보컬 퍼포먼스는 미니멀한 사운드 위에서 곡에 녹차 빛 색채를 감각적으로 더해주고, André 3000과의 콜라보로 진행된 "To The Moon"은 플루트와 여러 악기들을 엮으며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닫는다. <Possession>의 미니멀한 프로덕션과 세련된 음악성에서 우리는 그가 음악에 가지는 열망과 탐구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본작은 그의 디스코그래피 입문을 위한 가장 적당한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Stars Fell on Trench - Quinn

2024.12.15 / 감상주의

<stars fell on trench>는 퀸(Quinn)의 정규 앨범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음악을 위해 조각된 사운드 콜라주다. 무작위적인 장르의 변용이 데뷔작 <Drive By Lullabies>나 셀프 타이틀 앨범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아웃사이더로서의 정체성 및 심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각기 파편화된 단상으로 작용했다. 이번에는 탐구 그 자체를 위한 유미적 접근이 우선 포착된다. 탐구심을 발휘하는 영역 또한 상이하다. 더 이상은 디지코어에 관해 활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무수한 가명들 아래 다발적으로 배포됐던 데모들을 포함해 DnB, 하우스, 앰비언트, 하이퍼팝 등을 적극적으로 융합했던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났다. 대신 스탠더드 팝에 근간한 리소스와 힙합에 근간한 프로듀싱으로 말미암은 주류 스타들의 레거시를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재해석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한 듯하다. 영향을 받은 선구자로 자주 거론되어 온 Dean Blunt의 샘플링을 어느 때보다 많이 참고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사이키델릭한 커버 비주얼과 여전히 변덕스러운 사운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본작의 템포와 질감은 꽤나 중도적이며 온건하다. 어쩌면 순전한 호기심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정과 여유가 생긴 것일지도 모르리라.



The Skeleton Key - Roc Marciano & The Alchemist

2024.12.13 / 자카

락 마르시아노(Roc Marciano)와 알케미스트(The Alchemist). 항상 탄탄한 작품들을 발매해오던 둘이 깜짝 연말 선물 <The Skeleton Key>를 들고 왔다. 26분, 10트랙의 간소한 러닝타임 동안 짧고 굵게 두 아티스트가 발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알케미스트의 거친 재즈 루프와 락 마르시아노의 세밀한 래핑이 초반부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트랙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탄탄한 리릭시즘과 절묘한 샘플링이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하지만 반복적인 구성과 단조로운 플로우로 인해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예측이 쉬워지는 트랙들이 등장한다. 알케미스트의 비트 역시 일부 트랙에서는 굉장히 엉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청자를 사로잡기보다는, 그저 타 프로젝트에 활용되지 못한 비트들을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다. 또한 락 마르시아노의 플로우 역시 앨범을 홀로 이끌어나가기에는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의 훌륭한 리릭시즘만으로 그의 단조로움을 상쇄 시킬 수는 없다. 종합적으로 <The Skeleton Key>는 앨범 자체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지만, 2024년이 끝나가는 12월에 발매된 '연말 선물' 같은 앨범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신경쓰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2025년에 보여줄 활동들이 더욱 더 기대되는 시점이다.



KEEPIN IT CLOUDY - LAZER DIM 700

2024.12.18 / SONGCHICO

2024년,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린 레이저 딤 (LAZER DIM 700)은 열악한 환경이 만든 로파이한 질감의 믹싱과 뻔뻔하게 박자에 쑤셔 넣은 듯한 플로우를 자신의 주무기로 내세웠다. 그 만의 사운드는 한 편으로 Playboi Carti를, 다른 한 편으로는 Chief Keef의 드릴 사운드를 떠올리게 하며 독자적인 영역에서 애틀랜타의 유산을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저 딤이 '만인의 유망주'로 떠오르며 그를 우려하기 시작하는 의견들도 동시에 생겨났는데, 그 우려는 '레이저 딤이 로파이한 질감을 벗어나도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본작은 '괜찮은' 환경에서 증명이 필요한 레이저 딤의 시험대와도 같다. 믹싱과 환경을 벗어나보면, 본작은 그간 레이저 딤이 보인 음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를 바탕으로 했지만, 경쾌하기보단 어두운 분위기의 사운드와 강박적으로 비트를 쫓아가는 그의 랩이 함께한다. 또한, 모순적이지만 좋아진 환경도 그리 거슬리는 구석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발전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레이저 딤이 2024년을 겨우 현상유지로 마무리 했다는 것이 본작이 가진 가장 아쉬운 점이다. 그는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루키였으며, 바로 직전엔 Denzel Curry와의 협업을 통해 사운드를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래퍼임을 증명했지 않은가?

MASK ON! VOL.2 - KOUTH

2024.12.20 / SONGCHICO

2023년, <MASK ON!>으로 데뷔한 카우스(kouth)는 여성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레이지라는 점과 메탈에서나 접할 법한 일렉 기타 사운드로 많은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또한, 해당 작품을 통해 영세한 아티스트임에도 과격하고, 스케일이 큰 사운드를 무리 없이 소화한다는 장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1년이 조금 지나 발매한 연작, <MAKS ON!, Vol.2>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본작 또한 만만치 않게 과격하고 거칠 것을 암시하는 오프너 'CEO' 이후, 계속해서 일렉 기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진행 중 가장 독창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저크 (Jerk)의 드럼 패턴이 등장하는 'JERK RÖCK'으로, 그 제목처럼 성사된 저크와 락 사운드의 만남은 또 다른 쾌감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내 인터루드의 역할을 한 트랙, '01'을 지나면 본작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보다 더 잔잔하고 여유로운 프로덕션 하에 카우스는 더욱 멜로디컬한 플로우를 가져간다. 이 배치는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앨범을 듣고 있는 듯, 전후의 트랙들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의 벌스들은 분명한 흥미점이었으며, 후반부 트랙들의 프로덕션 또한 큰 흠결을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두 덩이로 크게 나뉘는 트랙들을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각 트랙들이 선사하는 쾌감만은 확실한 작품이었다.



R H I D E R E V I E W

의

시

스



Access All Areas - FLO

2024.11.15 / 자카

1. Intro (feat. Cynthia Erivo) / 2. AAA / 3. In My Bag (feat. GloRilla) / 4. Walk Like This / 5. How Does It Feel? / 6. Soft / 7. Check / 8. On & On / 9. Bending My Rules / 10. Trustworthy (Interlude) / 11. Caught Up / 12. IWH2BMX / 13. Nocturnal / 14. Shoulda Woulda Coulda / 15. Get It Till I'm Gone / 16. I'm Just A Girl

여자 아이돌들의 음악이 음원 차트 최상단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여돌 전성시대'인 대한민국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여자 아이돌 — 정확히는 아이돌 문화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Xscape, TLC, All Saints, Spice Girls, Destiny's Child, Fifth Harmony, Little Mix 등의 수많은 걸그룹들이 활약하며 음악 팬들의 마음과 라디오를 지배하던 나날들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 이야말로 이들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그룹이 등장했어야 할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3인조 그룹 플로(FLO)가 데뷔 앨범 <Access All Areas>와 함께 등장했다.

본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전설적인 그룹들의 유산에 대한 존경심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이를 단순히 복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들만의 색깔을 입힌다는 점이다. <Access All Areas>는 90년대 알앤비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더욱 세련된 프로덕션의 터치와 멤버 각각의 개성적인 보컬이 결합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창적인 결과물이 되었다. 이를테면, "Soft"와 "On & On"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매끄러운 보컬로 90년대 알앤비를 연상시키지만, 동시에 가사에서 드러나는 대담함과 솔직함은 분명 2024년의 것이다.

또한 <Access All Areas>는 그러한 점들을 빼놓고 보아도,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출중한 음반이다. 16트랙이라는 볼륨은 다소 지루함을 자아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플로는 모든 트랙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우아한 매력을 뽐낸다. 앨범의 핵심 트랙들인 “Check”와 “Caught Up”은 이들이 사랑을 대하는 성숙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뱅어 트랙들이다. 이들은 경쾌한 마이애미 베이스를 배경으로 하고, 보사노바와 싱커페 이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다.

이 트랙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셋의 보컬 합과 앨범의 프로듀서 MNEK에 있다. 플로의 보컬은 단순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게 살아있는데, Jorja의 감미로운 음색, Stella의 강렬한 중저음, Reene의 파워풀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각 트랙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보컬은 서로가 하모니를 이룰 때 특히 빛을 발하며, TLC를 비롯한 90년대 걸그룹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



MNEK의 프로덕션은 이러한 이들의 보컬 스타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단순히 복고적인 90년대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최신 트렌드를 적절히 가미해 플로만의 독특한 사운드로 만들어냈다. “AAA”와 “Check”와 같은 트랙들에서는 평키한 베이스라인이 돋보인다면, “Trust Worthy”에는 미니멀한 악기 구성과 풍성한 코러스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취하게 해 멤버들의 감성적인 보컬을 돋보이게 하는 등 디테일한 접근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려 준다는 것이다.

플로는 여타모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들은 첫 문단에서 언급한 선배 걸그룹들이 세워둔 높은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며, <Access All Areas>는 그러한 그들의 진심과 그들이 진행한 철저한 탐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플로는 그 지식을 지나치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더욱 넓고 또 깊은 시각에서 그들만의 스타일을 성립해냈다. <Access All Areas>는 알앤비 걸그룹의 시대였던 1990년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분명 플로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쌓아오고 있는 잠재력은 언젠가 음악 업계에 크나큰 신드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SMALL

작은

변화들

CHANGES

지은이 마이클 키와누카



Small Changes - Michael Kiwanuka

2024.11.22 / 자카

1. Floating Parade / 2. Small Changes / 3. One and Only / 4. Rebel Soul / 5. Lowdown (Part i) / 6. Lowdown (Part ii) / 7. Follow Your Dreams / 8. Live For Your Love / 9. Stay By My Side / 10. The Rest Of Me / 11. Four Long Years

マイケル・キワヌカ(Michael Kiwanuka)は、過去5年間で何を経験したのか？ 2019年に発売された「Kiwanuka」では、彼の音楽性とアートワークが評価され、世界中の音楽ファンに愛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その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大流行により、彼の生活も大きく変化しました。それでも、彼は自身の感情や経験を歌詞や音楽に反映させ、多くの人々に感動を与えています。

本作「Small Changes」は、まさに「小さな変化」について語る物語です。それは、人々の心や感情、そして人生における小さな変化を捉えたものです。歌詞には、「No heart's designed to be alone, but yours and mine overflow」というフレーズがあり、これは、自分たちの心が溢れ出るほど愛あふぎ、他人とのつながりが強くな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また、「Follow Your Dreams」では、「Follow your dreams, it's all you have」という歌詞があります。これは、夢に向かって歩むことの大切さを強調しているのです。

<Small Changes>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키와누카의 음악적 접근 방식의 변화이다. 5년 만의 정규 앨범인 만큼 엄청났던 전작 <Kiwanuka>와의 비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전작에서는 화려한 악기들을 등용해 에너지를 강조했다면 — 이번에는 보다 섬세하고 내면적인 혼탁들로 풍성한 사운드를 형성해낸다는 것이다. 또 한 번 Danger Mouse 와 Inflo의 손을 잡은 그는 본작에서 드림 팝의 요소와 빈티지 소울을 융합하며 동화적인 사운드스케이프를 탄생시켜냈다. 예를 들어 "Small Changes"와 같은 트랙들에서 그는 단순한 드럼 비트와 피아노 리프 위에 얇게 겹쳐지는 스트링 섹션과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잔향과 여백을 통해 곡의 감정적 깊이를 확장시킨다. 또한 "Live for Your Love"에서 베이스와 스트링 사운드가 키와누카의 보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곡의 후반부에 치달아 큰 덩어리로 뭉쳐진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순간은 본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이다.

또한 본작에서는 여전히 실험적인 시도들 역시 돋보인다. "Floating Parade"는 그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쾌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정교하게 쪼개진 드럼 리듬과 평키한 베이스 라인이 어우러져 그의 이전 앨범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Rebel Soul"은 어두운 피아노와 반복적인 기타 리프가 중심이 되는 트랙인데, 그는 두려움과 갈등을 표현하는 과감한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 감정적으로도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One and Only"의 Red Hot Chilli Peppers를 연상시키는 기타 톤 위로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Sade 타입 멜로디의 보컬 역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다.

키와누카는 또한 <Small Changes>에서 일상적인 경험 속 작은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노래한다. 사랑과 연대, 그리고 개인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내밀하고 사려 깊은 시선을 보여주는데, 복잡한 감정을 단순한 언어로 풀어내면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앨범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는 거창한 변화를 외치기보다는, 관계와 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이다. 또한 본작의 초점은 본인에게도 크게 맞춰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와누카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또 런던을 떠나 영국 남해안으로 이주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 그는 조용한 가정생활, 안정적인 현실, 그리고 새로 생긴 책임감이라는 주제에서 짙은 농도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을 짜내고 있다. <Small Changes>에 담긴 성숙함은 따뜻하고, 세밀하며, 또 성찰적이고, 느긋하며, 지혜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Small Changes>만의 느릿하고 차분한 전개가 모든 트랙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본작의 느린 템포와 유사한 사운드스케이프는 때때로 곡들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몇몇 곡들이 지나치게 비슷하게 들리게 만들곤 하는데, 전작 <Kiwanuka>의 선명한 메시지와 강렬한 편곡에 비해 이번 앨범은 보다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 이가 오히려 조금 모자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키와누카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의 사랑과 평화를 담은 메시지는 단박에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반적으로 몰입도 역시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ll Changes>는 키와누카가 여전히 음악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단순히 화려한 사운드와 강렬한 메시지로만 주목받을 아티스트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변화란 거대한 혁명을 비롯한 거창한 일들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축적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키와누카는 본작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자들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공감의 힘을 선사한다. 간단하지만 또 따뜻하게, 키와누카는 또 한 번 추운 겨울 날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준다.



The Party Never Ends - Juice WRLD

2024.11.29 / 자카

1. The Party Never Ends / 2. Misfit / 3. AGATS2 (Insecure) (feat. Nicki Minaj) / 4. Lace It (feat. Eminem & Benny Blanco) / 5. Cuffed / 6. KTM Drip / 7. Love Letter / 8. Condone It / 9. Goodbye (feat. The Kid LAROI) / 10. Party By Myself / 11. Adore You / 12. Celebrate (feat. Offset) / 13. Jeffrey / 14. Barbarian / 15. Best Friend (feat. Fall Out Boy) / 16. Floor It / 17. Oxycodone / 18. Spend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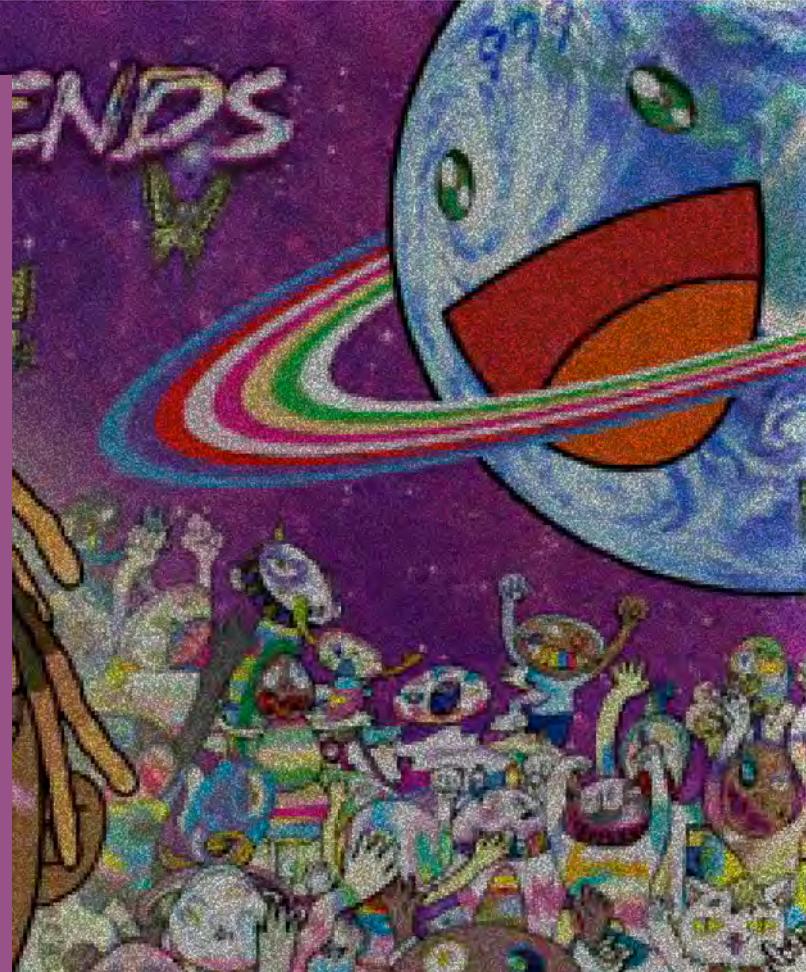
주스 월드(Juice WRLD)가 힙합 역사의 한 챕터를 이모 랩(Emo Rap) 장르로 물들이고, 힙합 씬의 새로운 슈퍼스타가 되는 데에는 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그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죽음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불가피하게 모두 멈춰버리게 되었다. 이후 *<Legends Never Die>*와 *<Fighting Demons>*를 비롯한 사후 앨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후 앨범들이 그러하듯, 두 작품 역시 아티스트가 생전 가졌던 정체성은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상업성에 더 치중된 공통된 모순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마지막 사후 앨범이라 공표된 *<The Party Never Ends>* 역시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올해 9월 SOPHIE의 사후 앨범 *< SOPHIE >*를 비롯한 나쁜 사후 앨범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본작은 아티스트의 정체성까지 나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아티스트의 위상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Misfit"과 "Condone It"을 비롯한 트랙들은 주스 월드가 생전 내비쳤던 어마 무시한 천재성이 다시금 발현되는 순간이다.

또한 앨범의 참여한 피처링진들과 주스 월드의 래핑이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진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보통의 사후 앨범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와 세상에 남아 있는 자가 한 트랙에서 노래를 해야 하기에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주스 월드의 명실상부 대표곡인 “All Girls Are the Same”의 속편인 “AGATS2 [Insecure]”의 Nicki Minaj를 보자. 주스 월드의 준수한 래핑, 그리고 Nicki의 적절한 보컬 퍼포먼스는 마치 둘이 생전 만나 제작된 것처럼 들린다. 또한 Eminem이 참여한 감동적인 “Lace It” 역시 Eminem과 주스 월드의 퍼포먼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작은 일관성을 곧게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Fall Out Boy, Offset, 또 결정적으로 The Kid LAROI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트랙들은 그저 상업적인 성과만을 노리고 발매되었다 느껴지는 부족한 트랙들이다. 앨범의 초반부는 주스 월드의 진가를 재조명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앨범은 일관성을 잃고 지나치게 방대해 집중력을 흐려지게 한다. 결국 <The Party Never Ends>는 사후 앨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앨범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본작이 가지는 정체성은 희석되지만 하며, 주스 월드가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와 음악들 역시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분명 전작 < Fighting Demons >에 비해선 덜해졌지만, 여전히 <The Party Never Ends>는 상업성만을 노린 채로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고야 만다.

주스 월드가 전성기 때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몇몇 트랙들이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또 너무나도 훌륭해서였기 때문이다. 그가 가졌던 천재성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는 꾸준히 좋은 트랙들을 배출해 내었었다. 그러나 <The Party Never Ends>에는 그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트랙들과 비견될 만한 트랙들이 전무하다. 본작은 좋게 봐서는 주스 월드에 대한 사랑이 담긴 헌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처럼 꾸며진 트랙들을 집약시켜놓은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24년, 현재 미국 힙합 씬은 ‘망설’로 정의된다. 곧 Mac Miller의 사후 앨범 <Ballonerism> 역시 발표될 예정이고, Pop Smoke와 Lil Peep, 또 Drakeo the Ruler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이른 시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Circles>와 같이 제대로 만들어진 사후 앨범들은 우리가 아티스트를 더욱 그리워하고, 또 경의를 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The Party Never Ends>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앨범을 청취하고 나면 “Misfit”을 비롯한 한두 곡, 그리고 Eminem의 벌스, 또 무라카미 다카시의 어딘가 불쾌한 앨범 커버만이 남을 뿐이다.

그래도 <The Party Never Ends>에선 주스 월드와 그의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기에, 본작을 제작한 그의 레이블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다. 본작을 처음 청취했을 당시, 필자는 2018년 “Lucid Dreams”를 들었던 순간을 회상하게 되었다. 이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빨리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이루어냈을 수 있었을 텐데. 괜스레 슬퍼진다. <The Party Never Ends>는 기묘하다. 그와 함께 웃으며 그의 노래를 듣던 시절이 생각나 행복해지기도, 동시에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스 월드는 우리의 곁을 완전히 떠났지만, 그가 생전 남기고 간 유산들 덕에 그는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그의 파티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주스 월드가 유독 그리워지는 밤이다.



THE UNDISPUTED TRUTH - Draeko the Ruler

2024.12.01 / 감상주의

1. The Party Never Ends / 2. Misfit / 3. AGATS2 (Insecure) (feat. Nicki Minaj) / 4. Lace It (feat. Eminem & Benny Blanco) / 5. Cuffed / 6. KTM Drip / 7. Love Letter / 8. Condone It / 9. Goodbye (feat. The Kid LAROI) / 10. Party By Myself / 11. Adore You / 12. Celebrate (feat. Offset) / 13. Jeffrey / 14. Barbarian / 15. Best Friend (feat. Fall Out Boy) / 16. Floor It / 17. Oxycodone / 18. Spend It

올해는 단연코 서부의 해이니라. LA뿐만 아니라, 미시간이나 오클랜드 등 여러 주를 포함한 서부의 하위 장르들이 2024년에 재조명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Tinashe의 “Nasty”가 틱톡에 바이럴된 순간부터 하이피 스타일이 클럽과 인터넷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니, DJ Mustard와 Kendrick Lamar가 완전한 래칫의 부활을 화려하게 알렸다. 이마저도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을까. 갑작스럽게 공개한 <GNX>는 사실상 서부의 모든 레거시를 집약한 도감이자 시기적 화룡정점이었다.

이와 함께 서부 음악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묵묵한 정진과 파급을 이어 온 03 Greedo, Hook, Young Slo-Be 등의 젊은 도사들 역시 지금보다도 더 뚜렷하게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 헌정 리스트에는 드레이코 더 룰러(Draeko the Ruler)가 단연코 헤드라인에 있다. 이번에 다 같이 선진하고 있는 하위 장르들 중에서도 너버스 뮤직(nervous music)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니까. 그 업적 하나만 가지고도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작금의 리바이벌 현상과 더불어 그의 공로가 한창 대두되고 있던 참에, 그의 두 번째 유작 <The Undisputed Truth> 발매는 그래서 공교롭다. 시의적절한 발매일은 각별히 뜨거웠던 고향의 한 해를 위한 송년회, 그리고 공로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의 의미를 강조한다. 앨범 타이틀 또한 절묘하다. 일명 <Truth> 시리즈의 네 번째 넘버링이다. 이번에는 그가 다루고자 하는 진실에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 제목이다.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음악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의 영혼이 여전히 실존 중에 있는 것처럼 근면하고 생생하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마침 그의 가치가 비로소 빛을 발할 적시에 말이다.

그가 진실에 대해 전념하기 시작한 데 분명한 바탕이 있다. 그는 별의별 혐의로 법정과 교도소를 오간 인물이다. LA 갱단 출신 중에 안 그런 스타를 찾는 게 더 힘들겠다만, 드레이코에게 그 이력들은 꽤나 주요한 작가적 테마로 자리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과 기소를 둘러싼 재판 공방이나 부조리 등에 관한 무거운 주제를 갱터 라이프와 자주 엮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컨셔스 힙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의 랩은 파티보다 오히려 간접적인 사회고발에 더 어울리기도 하다.

주제에 의한 특유의 무거움과 불길함은 래칫과 너버스 뮤직을 구분 짓는다. 특히 본작에선 영화 <투모로우>의 냉랭한 디스토피아 품은 앨범 커버와 맞물리며, 마치 그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듯한 쓸쓸함이 물씬거린다. 거칠고 둔중한 베이스와 날카로운 스네어 마저 "Perfect Eulogy", "Diss Me Again", "Bob Bob Bleed Em"로 이어지는 처연한 블루스를 가리지 못한다. 거의 모든 트랙의 샘플들이 죽음을 연상케 할 정도의 혹독한 겨울과 닮아 한없이 차갑고 건조하다. 리드미컬하지만 무덤덤한 드레이코의 중얼거림은 또 얼마나 무정하게 들리는가. 그는 거의 지쳐있는 상태다.

그러나 드레이코의 음악적 개성을 결정짓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성 그 자체보다 유머에 있으며, 본작에서도 이를 여지없이 발휘한다. 장르 명칭과 통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대부분의 평단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과도 가닿는다. 너버스 뮤직의 묘미가 유머에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장르의 창시자에게는 그것이 일관된 미학을 추동하는 원리였다. 03 Greedo나 Hook, 혹은 Stinc Team 등의 동료들 하나같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유머는 곧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진행에 번뜩이는 센스와 집중력, 날 것의 서사에 적절한 균형감과 입체적인 수사학을 제공한다.

<Thank You for Using GTL>의 교도소 수화기 랩 아이디어 또한 앨범 단위 전체를 할애한 위트였지 않은가. 때로는 그 유머가 되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쓰이는 등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드레이코는 굴하지 않는다. 프리스타일에 가까운 그의 비정형 랩, 터무니없는 은유도 거리낌 없이 뺄어대는 진실 한가운데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기 위한 라이선스다. 만약 그가 특정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호응을 하거나 저격을 함으로써 그것이 수사망을 건드리게 되더라도, 혹은 그가 트랙 제목을 "Archie Banker"라고 지었다고 해서 형사들이 이를 일종의 암호명으로 식별하게 되더라도, 어디 한번 잘들 해보라는 식이다. 자기 자신에게 민감할 소재들을 당당히 농담거리로 삼을 뿐이다.

어쩌면 당당하고 거침없던 그의 태도가 공공의 적을 만들고만 것일지도 모르겠다. 단순하고 익살스러운 브래거도시오조차도 본작에서 유달리 쾌감보다는 무겁고 복잡한 심경이 칼바람처럼 폐부를 찌른다. "I'm The Reaspm"에서는 전장에서 목숨을 다했던 영웅이 남아 있는 동료 및 후배들에게 바치는 묵직한 유언처럼 들린다. Nipsey Hussle의 <Victory Lap>처럼 그것이 곧 씬을 향한 전언이 됨으로써, 예술가들에게 문화적 각성제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의 희망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외지인들이 다시금 고향에 눈길을 주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히 가능성성이 있다. 묵묵히 걸어온 그의 외길에 바통을 이어받은 친구들과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터놓고 함께 걷는 모습들이 눈앞에 생생하다.



GNX - Kendrick Lamar

2024.11.22 / 온암

1. wacked out murals / 2. squabble up / 3. luther (with SZA) / 4. man at the garden / 5. hey now (feat. dody6) / 6. reincarnated / 7. tv off (feat. lefty gunplay) / 8. dodger blue (feat. wallie the sensei, siete7, roddy rich) / 9. peekaboo (feat. azchike) / 10. heart pt. 6 / 11. gnx (feat. hitta j3, youngthreat, peysoh) / 12. gloria (with SZA)

Ty Dolla \$ign과의 합작 <VULTURES> 2부작으로 깊은 절망을 안기고선 한국과 중국에서의 역사적인 이벤트로 금의환향한 Kanye West, 절대적일 것만 같았던 몇 규율에서 탈피하고 신작 <CHROMAKOPIA>로 하나의 문화 유행을 선도한 Tyler, The Creator. 이 힙합 아이콘들을 모두 제치고,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는 앨범 한 장 내지 않은 채 순수히 리릭스트로서의 역량과 무자비한 폭력성만으로 힙합 디스 역사의 한 장을 캐나다 출신 래퍼의 피로 물들이며 한 해를 대표하는 래퍼가 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던 — 계산적이고 폐륜적인 공격으로 Drake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저히 짓밟은 켄드릭의 승전가를 전 세계가 열창했고, 세상은 'The Pop Out: Ken & Friends' 콘서트로 웨스트코스트의 저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때로는 폭력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최근 그의 철학이 Drake라는 제물에게 잔혹한 방식으로 반영되며, 각각 장르의 상업성과 예술성을 상징하는 초신성 충돌로 인해 마침내 힙합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대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거치며 유독 부족한 성적을 보여주었던 힙합은 2024년 현재, 5년 만에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이 피와 살을 직접 발라내며 살려낸 무대에서 켄드릭 라마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Mr. Morale & The Big Steppers>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갈릴지언정, 그 자가적 심리 치료 과정에서 켄드릭 라마가 '구원자', '영웅' 등 기존에 그를 수식했던 모든 컴플렉스를 내려놓고 본인의 삶을 되찾겠다는 결말에 감동을 받지 않은 이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의 서사는 위대해지진 못했지만 인간적이기에 더 아름답게 종결되었다. 그런데 꽤나 당혹스럽게도, 지난 디스전에서 그는 이미 내려놓은 사명을 다시 짊어진 듯 보인다. 그것도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영웅 일대기의 주역만이 아니라, 일말의 도덕적 책임감마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설하고, 한 시대를 수놓았던 그의 지성이 건재하다 한들 그의 화법은 분명 더 직설적으로 변화했다. 'euphoria'의 악명 높은 "I hate the way that you walk, the way that you talk, I hate the way that you dress" 라인이 대변하듯, 켄드릭의 전달은 컨셔스 래퍼보다도 배틀 래퍼의 것에 근접하며 그의 당위는 지극히 단발적인 욕구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단발적 신경 반응은 켄드릭 본인의 철학과 직결된다. 그는 문화의 일부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곧 문화라는 프라이드에 지배당하며, 여느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들이 그러했듯 이 그 허황된 비전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본인이 '생존 경쟁'이라 묘사한 바 있는 혐난한 생 속에서 외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모한 켄드릭의 폭력성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그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자가성찰로 이루어한 업적의 방향을 이제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때, 그가 그토록 절박하게 호소했던 심리 건강 악화에 귀기울인 이는 얼마나 존재했는가? 애석한 일이지만, <To Pimp A Butterfly>의 켄드릭 라마는 이제 없다.

This is not for lyricists, I swear it's not for the sentiments
Fuck a double entendre, I want y'all to feel this shit
Kendrick Lamar, 'wacked out murals' 中

때문에 본작 전체에 걸쳐 분노와 환멸감, 우월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의아한 바는 아니다. 오프닝 'wacked out murals'는 현재 켄드릭 라마의 심정과 그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축약한다. 충격적일 만큼 육중한 전자 베이스를 필두로 엮어낸 미니멀리즘 오케스트레이션이 조성하는 긴장감 속에서 켄드릭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던 트랙 'Watch The Party Die'의 연장선을 그리며 업계에 대한 회의감과 개인적인 분노를 표한다. 특히 2025년 슈퍼볼 공연을 언급하며 Lil Wayne의 반응에 예상 이상의 실망을 표하고 Wayne이 자신의 업적을 폄하한 것이라 여기는 켄드릭의 모습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피해망상적이다. Snoop Dogg의 'Taylor Made Freestyle'에 대한 반응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켄드릭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며, 말 그대로 "Fuck everybody"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극적인 프로덕션 구성 능력과 경악스러운 랩 스킬로 아슬아슬한 선에서 그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한다. 청자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순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준까지 이입시키는 음악적 연출력의 힘이다. 결과적으로 'wacked out murals'는 켄드릭 라마의 오프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곡 중 하나로 승화되며, 성전을 알리는 포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강력한 인트로에도 불구하고 켄드릭은 이에 버금가거나 그를 능가하는 트랙들을 배치함으로써 전성기의 편린을 톡톡히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의 기존 우상들을 부정하는 만큼이나 켄드릭 라마는 남은 우상들을 더 극진하게 대접한다. 'man at the garden'과 'gloria'는 대표적이다. 각각 Nas의 'One Mic'와 Common의 'I Used to Love H.E.R.'을 오마주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 곡들은 켄드릭이 첫 트랙에서 과거의 잔재들을 무시하는 기조를 띠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가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을 복각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론, 이는 전설들의 위상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기 위한 일종의 몰염치한 승계 과정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힙합에 대한 켄드릭의 진심 어린 애정은 결코 그를 문학 찬탈자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듯, 켄드릭 라마는 문화의 일부이자 곧 문화 그 자체이다. "I'm Makaveli's offspring, I'm the king of New York", 켄드릭은 2Pac의 곡을 샘플링하면서 Biggie의 가사를 빌릴 수 있는 유일인에 가깝다.

오랜 동지인 Sounwave, Taylor Swift의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6:16 in LA'를 기점으로 켄드릭과 함께 한 Bleachers의 Jack Antonoff, 그리고 'Not Like Us'로 화려하게 부활한 DJ Mustard까지, <GNX>는 그 켄드릭 라마의 앨범답게 다채로운 레퍼런스를 두고 있다. Sounwave가 그의 경력을 살려 비트의 메인 리프를 설계하면 Jack Antonoff가 세세한 연주와 엔지니어링에서 보간하는 방식으로, 이는 <Mr. Morale & The Big Steppers> 에라부터 시도한 미니멀리즘 기반 얼터너티브 힙합 프로덕션의 개량형이다. 다만 본작의 음악적 성격을 결정적으로 정의하는 이는 DJ Mustard이다. Monk Higgins를 다시 한 번 샘플링하며 훨씬 폭발적인 'Not Like Us' 마크 2로 가공된 'tv off'부터, 너버스 뮤직(Nervous Music)의 영향을 지대히 받아 약동하는 베이스 위 위협적인 글리치가 희미하게 스쳐가는 'hey now'까지 Mustard는 그의 솔로 음반에서보다 더 흥미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Luther Vandross 샘플과 SZA의 압도적인 존재감만큼이나 'luther'에서 결코 부재해선 안될 Kamasi Washington의 스트링은 금상첨화이다. 각 트랙의 색채가 뚜렷 하지만 대부분이 동일한 기획과 동일한 프로듀서 하에 제작되었기에 전작보다도 오히려 향상된 유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44분이라는 짧지 않은 앨범 불륨에도 '뱅어 모음집', 혹은 켄드릭 라마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말초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GNX>가 상당한 흡인력을 지니는 이유이다.

반면 안타깝게도 소수의 트랙은 아득한 고점에 손가락을 뻗치지도 못한다. 'peekaboo'는 본작 내의 우수한 래칫 싱글들과 통렬히 비교되며 가벼운 엔터테이닝 정도를 제한다면 뚜렷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고, 앨범 발매 고작 이를 전에 비트를 받았다고 알려진 'gnx'는 비트와 벌스 모두 명백하게 수준 이하의 속 빈 강정에 가깝다. 특히 켄드릭 버전의 Outlawz 포스 컷이라 할 수 있는 'gnx'의 LA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역시나 본작에서 켄드릭이 보여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hey now'에 참여한 dody6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들의 벌스는 의미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환상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명불허전의 가창만으로 'luther'와 'gloria'에서 켄드릭이 절대 채울 수 없을 공백을 채우고 곡의 격을 한층 높이며, 그녀가 어째서 컨템포러리 알앤비 씬의 최정상에 존재하는지 다시 입증한 SZA와는 무척이나 상반된다. 커뮤니티에 대한 프라이드에 기반해 무명의 신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의도 자체는 공익적이지만, 그 활용도에서 <GNX>는 가장 무계획하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켄드릭 라마만의 랩 디자인이 아니라면 결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방증으로 작용한다. 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전성기의 André 3000를 능가하는 진보를 이룬 켄드릭은 라이밍에서 행할 수 있는 실험보다도 랩의 전달 방식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Drake와의 디스전을 기점으로 새롭게 채택한 듯한 그의 딜리버리는 <To Pimp A Butterfly>와 <DAMN.>보다 덜 정갈하지만, 감정적으로 변모하는 데 유리하고 청자를 이입시키는 데에 능하다. 그가 연기자로서 지닌 천부적인 재능이 표출되는 대목이다. 'wacked out murals'는 냉혹하리만치 신경질적이고, 'squabble up'은 우스꽝스러움과 중독성 사이를 영리하게 넘나든다. 'tv off'의 두 번째 파트에서 마이크가 찢어져라 Mustard의 이름을 연호하는 보컬 딜리버리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압권이다. 물론 'reincarnated'는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렬하다. 그의 저명한 미공개 작업물인 'Prayer'와 'How Much a Dollar Cost'를 결합시킨 후 'The Blacker The Berry'의 기조를 대입한 것처럼 들리는 이 트랙은 켄드릭의 우상인 2Pac의 Outlawz 시절 클래식 'Made Niggaz'를 샘플링하며, 96년의 격노한 영령에 이입해 짐승처럼 라이밍하는 켄드릭 라마의 플로우가 일품이다. 이제 리릭시스트로서 켄드릭 라마만큼의 전율을 선사할 수 있는 래퍼는 전무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설령 위로는 Nas와 Black Thought, Pusha T, 아래로는 Freddie Gibbs와 Denzel Curry, JID 등 그에 필적하거나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MC들이 존재하긴 하나, 그의 대외적 영향력을 능가하는 이는 전무하다. 어느 래퍼도 켄드릭만큼이나 자신감과 고통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가 독점한 정당성과 적법한 자격을 강탈할 수 없다. 그렇기에 켄드릭 라마는 분명 지구상 최고의 래퍼다.

Time flies, I'm carryin' debates of a top five Buryin' my
opps and allies

But I'd done a half job communicatin' feelings of being
stagnant

Life was gettin' bigger than just rappin'

Kendrick Lamar, 'heart pt. 6' 中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프로덕션적 미학이 창작자의 의중과 부합하는 시점이다. 'heart pt. 6'는 비트와 가사 양면에서 — 그리고 제목에서까지 — 가장 훌륭한 곡 중 하나이다. 켄드릭은 그의 과거를 회모하고 TDE와 Black Hippy의 결성, 그리고 그 해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Not Like Us' 뮤직 비디오에 이어 Drake가 'Family Matters'에서 주장한 불화설을 완전히 종식시킨다. 하나 재밌는 점은 이 곡이 SWV의 명곡 'Use Your Heart'를 샘플링했다는 것인데, 이 곡은 The Neptunes 시절의 Pharrell Williams 가 프로듀싱한 곡이다. Drake가 그의 정적들과의 신경전에서 Pharrell을 어떤 방식으로 모욕했는지 상기해본다면 켄드릭이 얼마나 영민하게 다방면적으로 그의 억측과 기행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으리라. 'heart pt. 6'에서 켄드릭이 채택한 표현법은 Dr. Dre의 'Talking to My Diary'를 연상케 하는데, 끝내 배드엔딩을 맞이한 후에야 뒤늦게 외양간을 고친 N.W.A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켄드릭은 보다 현명하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만 같다. 우리는 아직 소중한 가치들을 놓지 않은 켄드릭에게서 일말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켄드릭 라마의 에이징 커브는 여타 래퍼들과는 너무나도 상이하다. 그의 역량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을 수 없이 향상되어만 가는데, 정작 그의 전달과 표현은 점점 간소화되고 축소된다. 본작은 믹스테입이라는 의심을 받으리만치 켄드릭의 직관이 가감없이 투입된 앨범이다. <GNX>는 <Mr. Morale & The Big Steppers>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사적 발상의 무분별한 나열이며, 전작이 지녔던 일말의 폭력성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개조한 음반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Drake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인의 증명이자, 현재 최고의 래퍼가 그의 개인사와 문화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기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도 그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랩 스킬을 동반해서 말이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GNX> 이후 다른 음반이 발매될 것이 극명한데, 켄드릭 라마라는 래퍼가 지닌 야망과 창작력의 끝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이 현재로선 팬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고 도 두려운 순간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 태어난 Grand National Experimental이 최고로 기억되지 않을 리 만무할 터이니.



SNOOP DOGG & DR. DRE

R18

M I S S I O N A R Y

Missionary - Snoop Dogg & Dr. Dre

2024.12.13 / 자카

1. Fore Play (feat. BJ the Chicago Kid)
2. Shangri-La
3. Outta Da Blue (feat. Alus)
4. Hard Knocks
5. Gorgeous (feat. Jhené Aiko)
6. Last Dance With Mary Jane (feat. Tom Petty, Jelly Roll)
7. Thank You
8. Pressure (feat. K.A.A.N.)
9. Another Part Of Me (feat. Sting)
10. Skyscrapers (feat. Method Man, Smitty)
11. Fire (feat. Cocoa Sarai)
12. Gunz N Smoke (feat. 50 Cent, Eminem)
13. Sticcy Situation (feat. K.A.A.N., Cocoa Sarai)
14. Now Or Never (feat. BJ the Chicao Kid)
15. Gangsta Pose (feat. Dem Jointz, Stalone, Fat Money)
16. The Negotiator

근 몇 년간, 스눕 독(Snoop Dogg)과 닥터 드레(Dr. Dre)는 서로 굉장히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스눕은 Master P와 계약한 이후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반면 드레의 경우 꾸준히 훌륭한 신예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고, 여전히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비트를 선보이며 리스너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런 두 사람이 본작 <Missionary>를 통해 다시 손을 잡는다는 소식은 자연스레 많은 리스너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들의 재결합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에 대한 기대 역시 커다. 특히, 드레가 스눕에게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이전 작품들보다 더욱 흥미롭고 완성도 높은 앨범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수한 기대 속에서 나온 <Missionary>. 과연 어떠했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Missionary>는 기대 이상의 작품이다. 스눕의 커리어 하이이자 지평크 클래식인 <Doggystyle>의 후속작으로 언급된 작품이니만큼, 스눕과 드레 본인들 역시 본작의 퀄리티가 출중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눕은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나른한 래핑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욱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플로우를 선보이며 앨범에 생동감을 더하며, 드레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대적인 트렌드까지를 모두 흡수해 신선하면서도 묵직한 사운드로 앨범을 빼곡하게 채웠다. 환갑을 바라보는 두 노장의 비전은 여전히 전방위적으로 넓고도 깊다.

본작의 장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Outta Da Blue”에 주목하라. 생생한 피아노 리프와 Lisa Stansfield와 The Clash 샘플링, 그리고 스눕과 드레, Alus가 주고받는 래핑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또한 본 트랙은 80년대풍의 비트를 기반으로 하여 골든 에라 시절에 대한 아름다운 오마주를 담고 있다. 앨범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드레의 탁월한 프로덕션과 스눕의 여유로운 래핑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낸 “The Negotiator”, 스눕 특유의 유머러스한 가사가 돋보이는 “Pressure” 등 스눕과 드레는 약 50분간 완급 조절을 훌륭히 해내며 앨범을 큰 기복 없이 이끌어간다.

그러나 여전히 반백 살을 넘긴 노장들의 작품이기에, 여타 다른 래퍼들 — Ghostface Killah, Busta Rhymes 등등 — 의 그것처럼 다소 촌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한 점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트랙들은 Jelly Roll이 참여한 “Last Dance with Mary Jane”, Sting이 힘을 보탠 “Another Part of Me”이다. <Missionary>는 두 거장의 완전한 귀환을 알리는 앨범이다. 따라서 본작에 이러한 뜬금없는 피처링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Jelly Roll과 Sting의 코러스는 어색하게만 느껴지며, 앨범의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저 상업적 성과를 지나치게 의식했다 느껴질 뿐, 그 외에 두 피처링진들이 존재할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다. 또한 난데없이 등장한 레게 트랙 “Fire”는 스눕의 부끄러운 과거인 Snoop Lion 시절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는 참담한 트랙이다.



지난 몇 년간 스눕은 예술성보다 상업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레게와 가스펠 장르의 음반들을 비롯한 범작들을 지속적으로 발매해오며 커리어에 흠풍을 내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Missionary>는 그의 감각이 아직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작품이다. 물론 폭발적이었던 시리즈의 전작 <Doggystyle>에 비견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작은 드레와 스눕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힙합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목소리가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본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을 탄생시켰으니, 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또한, 올해 5월 Kendrick Lamar-Drake 디스전에서 West Coast의 Kendrick가 승전고를 울리고, 이후 ‘The Pop Out: Ken & Friends’ 콘서트와 “Not Like Us” 등의 트랙들의 인기로 인해 웨스트 코스트 힙합씬은 2024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다. 동시에 Vince Staples, Tyler, The Creator, ScHoolboy Q, Mustard 등 웨스트 코스트 힙합씬을 대표하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훌륭한 음반을 발매해오면서 대중들에게 웨스트 코스트는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2024년은 웨스트 코스트의 해였다. 그 마무리를 지을 작품이 필요했던 와중, 웨스트 코스트 힙합씬의 대부 스눕과 드레가 등장해 <Missionary>를 발표한 것이다. 2024년 웨스트 코스트 힙합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작품이 스눕과 드레의 것이라는 사실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BAD ASS F*CKING KID - Nettspend****2024.12.06 / SRUKSAN**

1. Growing Up / 2. Leader / 3. Project Pat / 4. Tommy / 5. Tyla / 6. A\$AP / 7. F*CK CANCER / 8. Skipping Class / 9. Beach leak / 10. Shut Up / 11. Birdbox / 12. Drop The Blunt / 13. Perc Soda / 14. LAUGHIN / 15. Say Please

xaviersobased, ksuuvi, Duwap Kaine … 해당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들어봤거나 이들의 음악을 접해봤다면, 저크(Jerk)라는 하위 장르에 이미 익숙하다는 뜻일 테다. 규칙성 없는 드럼 패턴, 찢어질 듯한 808 베이스와 몽롱한 프로덕션, 가장 핵심이 되는 즉흥 제작과 DIY 선호 방식(그리고 무조건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해야 함, 밑줄 짹). 작년 가장 방점을 찍었던 xaviersobased의 <keep it goin xav>나 저크의 특징만을 탐구하여 앨범에 녹여낸 Duwap Kaine의 <Duwap So Based>를 감상해 본다면, 저크라는 장르가 지난 흥미로움과 신선함을 곧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레이지 장르의 고착화, Playboi Carti의 오랜 공백기로 인해 시들어진 인기, 그를 모방하는 무수한 카피캣들. 유감스럽게도 레이지는 물리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저크는 과연 레이지의 후발 주자로 대체 가능할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레이지의 더 혼란스러운 대체제로써 저크 외에 쉽사리 떠올릴 수 있는 장르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미 언더그라운드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는 기류가 잠잠하게 흐르고 있다. 넷스펜드(Nettspend) 역시 마찬가지다. 이 재능 있는 07년생 래퍼는 저크 시장의 최대 유망주로 쭉 망받고 있으며, 이미 xaviersobased가 설립한 1c34의 비호 아래 경험치를 무럭무럭 먹고 있다.

"Shine N Peace", "Drankdrankdrank"와 같은 트랙들이 SNS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롤링 라우드 스테이지에도 서는 등 넷스펜드는 단기간에 컬트적인 지지층을 소유하게 된다. <BAD ASS F*CKING KID>는 나름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발매된 그의 첫 LP 단위 믹스테이프로, 리스너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 여러 가지 의미로 빗나가는 문제작이다. 또한 저크 홀릭들을 배반이라도 하듯, 그는 본작에서 레이지와 위치 하우스 (Witch House) 그 사이 어딘가를 부유하는 음악을 선보이며 시원하게 뒷통수를 쳐버린다. 하지만 <BAD ASS F*CKING KID>는 속단하기에는 일러도, Gen-Z 세대가 부르짖을 수 있는 노스텔지아를 독창적으로 표출해낸 넷스펜드의 호기로운 작품이다.

정신착란적이라기보다 산만한 청취 경험을 선사하는, 따라서 저크라고 분류하기에 애매한 이 문제작은 — 모든 트랙들이 조각조각 분절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 트랙 내에서도 가사들이 일관성 없이 휘발된다. 오프너 "Growing Up"에서만 해도, 마디 단위로 점프하며 뇌 속에 있는 말을 이리저리 기워 붙일 뿐인 그의 작법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로 하이한 상태('seventh heaven')를 강조한 뒤, 뜬금없이 스물 일곱('twenty-seven')도 안됐는데 클럽을 가지고 싶다면 라임을 맞추고, 곧바로 다음 마디에서 트론('TRX') 코인에 투자했다며 방탕한 삶을 과시한다. 전달력은 하나도 없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달되는 이상한 현상.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정방향의 비트를 훑어가는 그의 역순행적 터치는 꽤 흥미롭게 느껴진다.



의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묻어 나왔을 테지만, Chief Keef, Playboi Carti 등 선배 래퍼들의 고유 스타일이 07년생 래퍼에게 관측되는 것은 — 긍정과 부정,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특히 그를 벡스트 치프 키프나 벡스트 카티라고 비유할 바는 안되지만, 적어도 이들의 유산이 이토록 저급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 Gen-Z 키드에 의해 이렇게도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앨범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이 Carti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 "Tyla", "Perc Soda" 등 여러 트랙은 전형적인 카티 스타일의 레이지로, <BAD ASS F*CKING KID>, 이를 넘어서 넷스펜드의 가치를 대폭으로 저하시키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구사하는 래핑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라인을 되는대로 짰겠지만, 특히나 더 무지성으로 휘갈겨진 라인에서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Carti의 냄새가 풀풀 풍겨난다.

무료 앱, BandLab을 통한 녹음,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즉흥 테이크. 단조로운 단어들의 배열과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트랙들. 우리가 흔히 '구리다'라고 정의 내리는 퀄리티가 그 래퍼만의 캐릭터, 예술성이 돼버린 작금의 흐름이 흥미롭다. Grimes의 "Genesis"와 같은 명곡을 샘플링하여 개떡같이 탈바꿈해놓은 "Skipping Class"는 어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래핑과 서사를 선보이지만, 이상하게 밉지는 않다. 굳이 넷스펜드와 같은 래퍼가 현 세대 래퍼의 청사진이라 추켜세우기도 싫고, 이러한 흐름을 힙합의 뉴웨이브라 칭하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 적어도 넷스펜드는 현 세대의 단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믹스테이프 하나로 포텐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기에 그의 성장을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아직은 존재하며, <BAD ASS F*CKING KID>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나름의 흥미로운 데뷔다.



한국

한국

한국

C E S S N A 1 7 2

T E S T U N I



Tetsuo & Youth - Lupe Fiasco

2015.01.20 / moogsick

1. Summer / 2. Mural / 3. Blur My Hands (feat. Guy Sebastian) / 4. Dots & Lines / 5. Fall / 6. Prisoner 1 & 2 (feat. Ayesha Jaco) / 7. Body of Work (feat. Troi & Terrace Martin) / 8. Little Death (feat. Nikki Jean) / 9. No Scratches (feat. Nikki Jean) / 10. Winter / 11. Chopper (feat. Billy Blue, Buk of Psychodrama, Trouble, Trae tha Truth, Fam-Lay & Glasses Malone) / 12. Deliver / 13. Madonna (And Other Mothers in the Hood) (feat. Nikki Jean) / 14. Adoration of the Magi (feat. Crystal "Røvél" Torres) / 15. They.Resurrect.Over.New. (feat. Ab-Soul & Troi) / 16. Spring

루페 피아스코(Lupe Fiasco), 올해 활동 25주년을 맞은 이 도인을 어떤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 힙합 최고의 리릭리스트? Kanye West와 같은 시기 시카고를 빛냈던 총아? 아틀란틱 레코즈와의 갈등 끝에 희생된 천재? 긴 커리어만큼이나 보탤 말이 많지만, 필자는 그를 Kendrick Lamar와 대등히 설 수 있었던 사내라 부르고 싶다. 분명 데뷔작 <Lupe Fiasco's Food & Liquor>은 <Section.80>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작품성과 파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쾌조의 출발 후 레이블의 전폭적인 지원만 있었더라면 "Nothin' on You", "Airplanes"를 비롯한 하트송도 루페의 차지가 되었을 테다. 괴작 <Lasers> 또한 지루하게 이어진 갈등 끝에 팬들의 요청으로 뒤늦게 발매되었고 <Food & Liquor II: The Great American Rap Album Pt. 1> 역시 초기의 임팩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결과물이었기에, 후발 주자들이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첫 두 앨범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었던 루페는 분노에 차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Kendrick Lamar가 흑인음악의 신약성경을 새기며 왕좌에 오른 그해, 루페 역시 펜을 들고 역작을 써 내려갔다.

<Tetsuo & Youth>는 결코 친절한 음반이 아니다. <To Pimp A Butterfly>가 선형적 서사와 여러 장치를 통해 비교적 쉬운 이해를 돋는다면 본작은 루페 특유의 작법에 여러 모티프가 뒤엉켜 있어 그 구조를 먼저 정렬한 후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 해석에 정답은 없는 만큼, 또 루페가 답안지를 제시하지도 않은 만큼 감상은 자유 이기에 그저 이 글을 하나의 이정표 삼아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분명 <Tetsuo & Youth>는 절정에 오른 랩과 치밀한 스토리텔링 실력, 그리고 힙합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곡 하나만으로 감히 <To Pimp A Butterfly>의 왕좌를 넘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Tetsuo & Youth>를 지탱하는 축은 사계절과 이에 따른 순환 구조다. 여름-가을-겨울-봄 순으로 제시된 스킷은 작품을 세 구간, 후술할 내용을 미리 꺼내오면 사실상 네 구간으로 나눈다. 이때 봄-여름-가을-겨울의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루페는 모든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는 봄과 여름을 의도적으로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가을과 겨울의 어둡고 차가운 모습들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청자는 루페의 인도에 따라 트랙리스트를 뒤바꾸지 않고 순서대로 감상해야 하는가? 혹자는 곡 내 몇몇 라인에 착안하여 <DAMN.>이 그러했듯 모든 트랙을 역순으로 들어야만 완전한 스토리로 재구성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변형을 가하고자 한다. 바로 명실상부한 하이라이트인 “Mural”만을 맨 뒤로 옮기는 것이다. 각 가사와 곡을 구성하는 핵심은 “Mural”에 포함되어 있으며, “Mural”은 다시금 앨범 전체를 갈무리하며 부분이자 전체가 된다. 이 전제 조건에서 글이 시작된다.



여름에 해당하는 두 트랙 속 루페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이다. “Blur My Hands”에서는 Guy Sebastian이 보다 높은 비중을 가져갔던 팝 랩 스타일 “Battle Scars”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실력을 과시하며, “Dots & Lines”는 컨트리풍 밴조 연주를 앞뒤에 배치해 통일성을 갖춘 후 가벼운 질감의 신스 사이사이 스트링과 하모니카를 집어넣어 초반부의 긍정적인 무드를 주도한다. 그러나 그 분위기와 달리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절대 가볍지 않다. ‘In a line, in a line, in a line, in a line, in a line / Three angels in kind, on time, go straight, don’t sine (일렬로, 일렬로, 일렬로, 일렬로, 일렬로 / 세 천사, 시간 맞추어, 똑바로 가, 사인하지 마)’ – ‘angel’과 ‘angle’, ‘sine’과 ‘sign’ 사이의 영리한 워드플레이에서, 루페는 대형 레이블과 계약하는 것의 위험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어 벌스 3의 말미에선 ‘But truth be told it’s the pursuit of gold that turns the goal of men into trash / The soul’s gold and they turning gold into cash (솔직히 말할게, 황금을 추구하는 순간 인간의 목표는 쓰레기가 되지 / 영혼은 금이지만 개들은 금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걸)’라며 이를 영혼을 파는 행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루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아틀란틱과 계약한 루페 앞에는 끝없는 간섭과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참담한 심정은 엉금엉금 기어가는 콘트라베이스 위 구슬픈 곡조의 “Fall”로 형상화된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위대한 트랙 “Prisoner 1 & 2”에서, 루페는 죄수와 교도관으로 번갈아 분하며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를 비판한다. 루페의 여동생 Ayesha Jaco가 맑아 두 파트를 잇는 내레이션 속 ‘새로운 Jim Crow 법’은 바로 흑인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그 자체이다. 그런데 각 장면의 화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Prisoner & Correctional Officer”가 아니라는 점은 곧 흑인 죄수를 억압하는 교도관 역시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흑인이며, 부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또한 가을 단락 전체는 사회를 겨냥함과 동시에 루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죄수의 모습을 서술하는 파트 2의 첫 라인이자 상술한 “Dots & Lines”와 이어지는 ‘They sell they souls, they sell their selves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 그들은 스스로를 팔아 치워)’가 대표적이다. 종교적 모티프를 풀어내기 시작한 “Body of Work”, Nikki Jean의 코러스를 중심으로 각각 브라스와 기타 루프를 넓게 펼친 “Little Death”와 “No Scratches”도 마찬가지다. 모든 곡은 각자 다른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되 그 속에 루페의 고난을 숨겨 두었다. ‘How are your chains, do they make you behave (네가 찬 체인은 어때, 그게 널 움직이게 만드니)’에서 ‘See first I had patience, and a nigga had energy / But now I'm weak, definitely (맨 처음 난 인내심도 지녔고, 힘도 가지고 있었지 / 하지만 지금의 나는 분명 나약해)’로 이어지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비로소 약점을 직시한 루페는 가장 혹독하면서도 화려한 다음 계절로 발을 옮긴다.



“Winter”는 그 어떤 스킷보다 혼란스럽게 소용돌이친다. 문제의 직시가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동료들과 32마디씩을 맑아 거리의 삶을 노래하는 “Chopper”의 말미에서도 ‘With a clean record but I'm cursed / To make a half a million off a verse (깨끗한 욕설 없는 레코드를 냈지만 난 저주받았어 / 벌스 하나로 50만 달러를 벌었지)’라고 <Lasers>의 실패를 회고하며, “Deliver”는 피자 배달조차 오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게토의 삶을 묘사한다. 이 중 ‘Can I get delivered from the sin? / Get a little slice of Heaven, I can enter in again (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 천국의 작은 조각을 얻고 싶어,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라는 라인에서 착안한 해소의 실마리는 종교에 있다. 공교롭게도 훗날 Kendrick Lamar와 더욱 긴밀히 협업하는 DJ Dahi가 프로듀싱한 겨울 챕터의 마지막 세 트랙에서, 루페는 DJ Dahi 특유의 전자음과 비전형적 드럼 패턴 위로 종교와 게임에 대한 수많은 은유를 늘어놓는다. 아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현대의 성모 마리아들을 그린 “Madonna (And Other Mothers in the Hood)”, 동방박사를 포함한 아브라함계 종교의 상징을 게임과 이은 “Adoration of the Magi” 속 루페는 냉철한 모습으로 모든 현상을 훑어본다. 보스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They.Resurrect.Over.New.”는 모티프를 가져온 SF 게임 시리즈 <트론>에 착안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자신을 말콤 엑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이라는 두 선지자에 빗댄 가사는 그의 수련이 어느새 개안에 가까이 접근했음을, 그리고 흑에서 되뇌는 말처럼 계속 레벨 업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문제 발생과 해결이라는 순환을 넘어 어느덧 잠잠해진 추위를 지나, “Summer”와 유사하되 한결 평화로운 “Spring” 뒤 청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대한 엔딩이다.

먼저 솔직히 고백하건대, 필자 역시 “Mural”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 화자인 독자뿐만 아니라 본토의 리스너들도 마찬가지리라. 이 위대한 화가의 세밀한 봇질은 캔버스의 전체 영역에 걸쳐 여러 차례 덧칠을 해둘 정도로 치밀하고 다층적이기에 모든 선을 하나하나 뜯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거리를 두채 총체적으로 관조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의도를 약간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본격적인 감상 전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루페가 <Tetsuo & Youth> 발매 한 달 후 자신이 설립했던 청소년 지원 재단의 이름을 ‘M.U.R.A.L.(Magnifying Urban Realities & Affecting Lives / 도시의 현실을 확대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직접 창조한 최고의 산물을 역두문자화한 이름은 “Mural”, 더 나아가 <Tetsuo & Youth>의 지향점으로 보다 넓은 차원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자신의 깨달음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며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여름의 자신감은 ‘You gotta treat your vocal chords like it’s fortress / And treat every single one of your words like reinforcements (중략) When I was reporting that I was poor / But now I’m more than (네 성대를 요새처럼 보존하도록 해 /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가 지원군이 될 테니 /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했던 시절을 기억해 / 하지만 난 이제 그 이상이지)’로, 가을의 통렬한 비판은 ‘My rap position was black condition and activism / Ammunition for abolition, missions attacking systems (내 랩의 위치는 흑인의 환경과 행동주의를 위한 것 / 폐지를 위한 탄약이자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임무지)’로, 겨울의 종교적 상징은 ‘Unless you Virgin Mary, nothin’ do it but the truest / Believe all that, unless you Jewish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가장 진실한 일만 하라고 / 모든 걸 믿어,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면’로 이어진다. 즉 “Mural”은 <Tetsuo & Youth>를 구성하는 성분인 동시에 앨범 전체의 메시지를 산개해 놓은 요체로서 기능한다. 상술한 라인을 제하고도, 다 쓰자면 지면이 부족할 지경의 가사들은 모자람도 과함도 없이 8분 48초의 러닝타임 동안 맞물려 지대한 감동을 자아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많은 메타포를 전하며 플로우 형성과 라임 배치 면에서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앨범 전반에서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걸출한 래핑을 구사한 루페지만, “Mural”的 신들린 듯한 광경은 유독 완전무결하기에 랩 뮤직의 내용적, 형식적 미학을 전부 정복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Rewrite history, liberty needs a better bell (역사를 다시 써, 자유는 더 나은 종이 필요해)’라 선언할 정도로 장엄한 각성이다.

그렇다면 왜 “Mural”을 엔딩으로 재배치해야 하는가? 해답은 마지막 라인에 있다. ‘Defeat Samsara, achieves nirvana and brilliance (윤회를 물리치고, 열반과 광명을 얻어)’ – “Mural”이 첫 트랙으로 존재할 때, 루페는 “They.Resurrect.Over.New.”에서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순리에 맞추어 여름으로 돌아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환을 반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Spring” 다음 마지막으로 “Mural”이 등장할 때는 다르다. 한파마저 이겨낸 루페의 앞에는 깨달음이 놓여 있었고, 지나왔던 길과 삶을 수많은 가사로 되짚는 수행 끝에 열반에 다다르게 된다. 겨울 챕터의 마지막 세 트랙에서 차례대로 기독교, 유대교와 이슬람을 거친 끝에 불교까지 아우름으로써 종교적 성찰을 이뤄낸 모습이다. 마치 탱화처럼, 온갖 생명이 약동하는 봄 비로소 삼라만상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한 루페의 자취를 그려내는 것 – 이것이 “Mural”이 지닌 본목적이다.

루페는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고도화된 수사법과 작법을 <Tetsuo & Youth>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최고작으로 짚음의 패기가 가득한 <Lupe Fiasco's Food & Liquor>, 데뷔작을 정교하게 다듬은 <Lupe Fiasco's The Cool>, 완숙한 중년의 <Samurai>가 아닌 <Tetsuo & Youth>를 꼽게끔 한다. 아직까지도 작품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 이 레딧과 유튜브 등지에 가득하지만, 루페가 감추어 둔 의미는 아무리 곱씹고 탐구해도 끝을 모르는 듯 계속 나타날 뿐이다. 그렇기에 이 명작을 진정으로 감상하는 것은 오롯이 청자 스스로에게 달렸다. 트랙리스트를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본고의 조야한 해설을 뒤집고 반박해도 좋다. 인생은 사전이 아니라 유의어 모음집이니까.





2014 Forest Hills Drive - J. Cole

2024.12.09 / denim

1. Intro / 2. January 28th / 3. Wet Dreamz / 4. 03' Adolescence / 5. A Tale of 2 Citiez / 6. Fire Squad / 7. St. Tropez / 8. G.O.M.D. / 9. No Role Modelz / 10. Hello / 11. Apparently / 12. Love Yourz / 13. Note to Self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북미 공중파를 장악한 MTV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대중문화의 욕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 낸 상징적인 플랫폼이었다. 화려한 팝스타들의 무대는 소문으로만 접할 수 있던 할리우드의 삶을 생생히 드러냈고, 그들의 웃음은 진정한 행복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러한 희망은 빈민가 출신 래퍼들의 등장과 함께 더욱 증폭되었으며, 그들의 성공은 빈곤에 허덕이던 아이들에게 동경을 넘어 계층 이동과 출세의 꿈을 심어주었다. 자신들의 처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사한 것이다.

어린 저메인 라마 콜(Jermaine Lamar Cole) 역시 한때 이 21세기 버전의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다. 오늘날 제이콜(J. Cole)이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의 헤드라인을 휩쓰는 래퍼가 되기 이전에 말이다. 그 역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자 돈과 여자를 갈망하는 가사가 잔뜩 담긴 믹스테이프를 팔아보려 거리를 전전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우상인 Jay-Z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눈보라를 맞으며 Roc-A-Fella Records 건물 앞을 지킨 적도 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목격해온 그대로이다.

MTV 속 래퍼들을 동경하던 이 소년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금전적으로는 그들 이상의 성취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이콜은 여전히 힙합 씬 내에서 가장 검소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흰 나시티에 농구 쇼츠를 걸친, 흡사 노숙자와 같은 수수한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뉴욕 시내를 누비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이뿐인가? 비싼 페스티벌 티켓을 감당할 수 없는 팬들을 위해 1달러짜리 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유명해지기 전의 자신을 도운 이들을 찾아 보답하는 모습에 힙합 씬은 그를 안드레 3000을 잇는 '현자' 혹은 '도사'라고 부른다. 마음만 먹으면 전세기를 사서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을지언정, 어째서 이 슈퍼스타의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진정 욕심 따위는 없이 태어난, 열반에 오른 존재인 것일까? 제이콜은 이에 대한 답변을 10년 전 발매한 자신의 클래식 앨범, <2014 Forest Hills Drive>에 이미 적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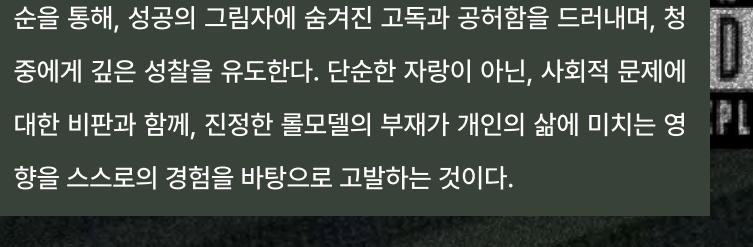
북캐롤라이나 Fayetteville에 위치한 자신의 본가 주소와 동명의 이 작품은 단순한 트랙 모음집이 아닌, 제이콜 본인의 성장 과정을 담아낸 음악적 자서전이다. 해당 앨범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연출되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인 '행복해지고 싶니?'로 시작하는 "Intro"와 제작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샤라웃하는 엔딩 크레딧 "Note To Self",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갈망, 성취, 고통, 깨달음을 담아낸 이 사이의 11트랙. 단 한 시간 만에 제이콜은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변화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전하며, 단순히 자기 고백을 넘어 인간의 갈망과 추구해야 하는 행복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한다.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앨범의 플롯은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 야망의 근원을 내포한 실질적인 도입곡인 "January 28th". 사춘기 소년이 느끼는 불안감과 이를 감추고자 드러내는 과시욕을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려내는 "Wet Dreamz"와 "'03 Adolescence". 생존을 위해 서로를 갚아먹는 고향의 이중성을 밀고하는 "A Tale of 2 Citez"와 이를 버리고 더 멀리 나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St. Tropez"까지. 제이콜은 앨범의 중반부까지 거대하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열망이 점차 기괴하게 변형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타락은 그다지 대단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 그 또한 집을 오래 떠나 있을수록 돌아가야 할 이유를 잊은 것뿐. 돈다발 너머에는 돈더미가, 주택 너머에는 대저택이 보였기에 제이콜은 더 큰 성공을 이뤄내야만 비로소 금의환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귀가를 미룬다. 그러나 훗날 인터뷰를 통해 사실 "St. Tropez"를 쓸 당시 그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했다고 고백하듯, 콜은 자신의 욕심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마치 한 마리의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변화의 지점은 앨범의 8번 트랙 "G.O.M.D"에 있다. 힙합을 '그녀'로 의인화한다는 점에서 Common의 "I Used to Love H.E.R"과 유사성을 지닌 이 트랙은 애인과의 만남, 결별, 그리고 재회를 통해 제이콜의 내면적 갈등과 변화를 직관적으로 묘사한다. 어린 시절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성공과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탐욕과 위선으로 인해 잃게 된다. 부와 명성만을 쫓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녀'를 상실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초심을 되찾게 된다.



"No Role Modelz"는 제이콜의 커리어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곡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트랙은 흑인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룰모델 없이 커야만 하는 현실을 조명하며, 그 결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왜곡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돈'이라는 허상과 같은 정답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제이콜은 이러한 모순을 통해, 성공의 그림자에 숨겨진 고독과 공허함을 드러내며, 청중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단순한 자랑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정한 룰모델의 부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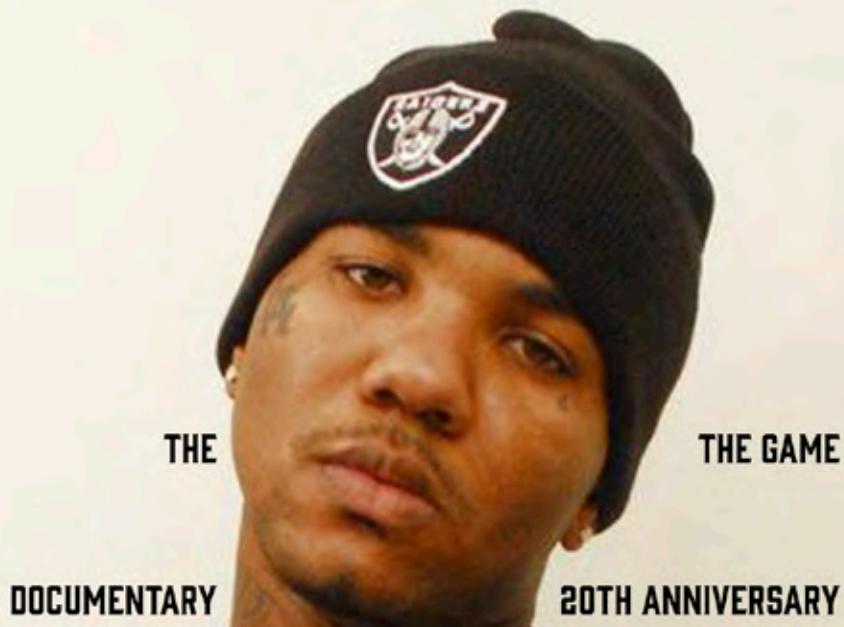
이후의 두 트랙 “Hello”와 “Apparently”에서 제이콜은 고향의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실망스러운 행보로 인해, 마치 자신이 그랬듯 모두가 자신을 떠났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그를 포기한 적 없이 꾸준히 통화를 걸어왔음을 깨닫는다. 그동안 받지 않은 것은 본인이었음을 인식한 제이콜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다.

해서 도달한 앨범의 마지막 트랙 “Love Yourz”는 화자가 자신의 20대를 바쳐 알아낸 삶의 해답을 적어둔 답안지이다. 제이콜은 빈민가에서 벗어나려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과 욕심만을 더하는 이들에게 틀린 방향으로 너무 오래 걷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곡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결국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빠질 정도로 클리셰적인 답변이지만 어쩌겠는가? 돌이켜보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해답들은 늘 뻔한 것 투성이었다.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단지 리뷰를 적고자 꺼내 정주행한 <2014 Forest Hills Drive>는, 솔직히 말하자면 10년 전만큼 필자의 최애 앨범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추억 보정을 제하고 평가하자면, 앨범 곳곳에는 어딘가 유치하거나 모자란 듯한 구절과 프로덕션이 존재하며, 동시에 현재의 제이콜이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를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이콜의 과거와 앞으로의 커리어를 통틀어 이 앨범을 넘어서는 순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KOD>를 기점으로 삶을 통달한 듯한 인물이 되어 현재 여러 동료 및 팬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지만, 진부한 랩은 둘째치고 보다 높은 곳에서 전하는 그의 말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남들과 같이 쾌락에 빠지고 실수를 반복하며 얻은 가치를 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하던 그때의 이야기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말들이었다. 나는 현자 제이콜이 아닌, 인간 시절의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The Documentary - The Game

2005.01.18 / 온암

1. Intro To The Documentary / 2. Westside Story / 3. Dreams / 4. Hate It Or Love It / 5. Higher / 6. How We Do / 7. Don't Need Your Love / 8. Church For Thugs / 9. Put You On The Game / 10. Start From Stratch / 11. The Documentary / 12. Runnin' / 13. No More Fun And Games / 14. We Ain't / 15. Where I'm From / 16. Special / 17. Don't Worry / 18. Like Father, Like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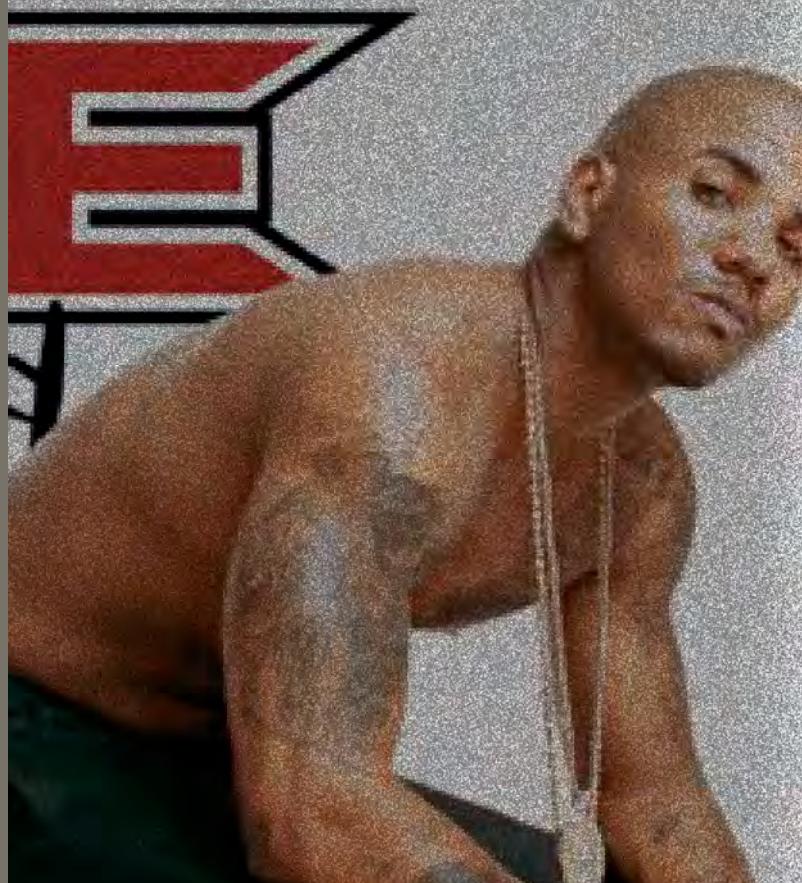
아프리카 속담 중 이런 말이 있다. '아이 하나를 기르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Dr. Dre를 필두로 한 웨스트코스트의 애프터매스 사단은 언제나 신예를 육성하는 데에 열성이었다. 설령 그 신예가 타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눈에 LA의 적자처럼 보이는 이가 들어온다면, 하나의 데뷔에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네트워크는 얼마나 막대할까? Dre는 Eminem을 키워냈고, Eminem은 50 Cent를 육성했다. 그리고 50는 자신 이전의 모두와 함께 더 게임(The Game)을 서부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는훗날 이들이 철천지원수가 되기 몇 년 전의 이야기이다.

컴튼과 블러드. 단 두 단어만으로 우리는 더 게임의 데뷔 전 인생을 짐작할 수 있다. 마약과 총성이 가득한 삶 속에서 흉부에 맞은 5발의 총상으로 생을 마감할 뻔하기도 했던 그의 일대기는 공교롭게도 반대쪽 땅의 50 Cent가 겪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더 게임이 50의 G-Unit에 합류하는 것 또한 운명적인 일이었을지 모른다. Dr. Dre의 눈에 든 그는 애프터매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말은 즉슨, 힙합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대한 세력 하나가 데뷔를 앞둔 신인 래퍼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The Documentary>는 과연 힙합 역사상 최대의 데뷔 앨범 중 하나로 완성되었다.

Dr. Dre, Kanye West, Cool & Dre, Havoc, Just Blaze, Timbaland, Hi-Tek, Buckwild, 그리고 Eminem. 놀랍게도 단 한 음반에 동원된 프로듀서들의 목록이다. 이들 중 다수가 당시 음악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The Documentary>의 라인업이 보여주는 저력은 단순히 상당하기만 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JAY-Z의 <The Black Album> 정도가 아니라면 본작의 화려한 캐스팅에 비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 힙합 음반은 거의 없으리라 단언할 수 있다. 그것도 중견 래퍼가 아닌 이제 막 데뷔하는 래퍼의 앨범임을 감안한다면, 실로 그 제작비의 규모와 그조차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애프터매스의 결단력이 경이로워지는 대목이다.

바로 그 때문에, <The Documentary>는 아티스트의 주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결점 또한 함유하고 있다. 여전한 스타덤 라인업에 기반하지만 Dr. Dre의 영향력 하에서 탈피해 보다 주체적으로 완성된 <Doctor's Advocate>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 프로덕션은 온전히 게임의 것이라기보다, 서부 힙합 씬의 부흥을 위해 그의 이름을 앞세운 하나의 대형 캠페인처럼 느껴진다. 신인의 앨범이라기엔 너무 잘게 보이는 거물들의 이름과 다소 노골적인 힙합-알앤비 싱글들의 존재까지, 이 음반의 존재 의의는 너무나도 노골적이다.

물론 그런 사사로운 명분을 제하고 음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엔터테이닝의 측면에서 본작은 2000년대 최고의 서부 힙합 음반에 가깝다. 중반부의 과한 알앤비 참조가 상업성을 의식한 듯 싶지만, 오히려 가장 상업적인 순간은 더 게임이 가장 힙합 원류에 근접한 자세로 돌입하는 순간이다. 웨스트코스트 특유의 위협적인 키보드를 앞세운 비트 위 지역 대표로서 포고하는 "Westside Story"를 시작으로, "Hate It Or Love It"과 "How We Do"라는 일련의 환상적인 드리는 각각 힙합 음악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며 아직까지도 역사에 남을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다. "Church For Thugs"의 Just Blaze는 게임의 열정에 걸맞는 비트들을 주조했고, "Put You On The Game"의 Timbaland은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Runnin'"과 "Where I'm From"은 상반된 서부 힙합 음악을 단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음반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합 없이 작동한다. 무엇보다 "Dreams"는 화룡점정이다.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 경력을 수놓고 장래를 그려나가는 더 게임의 랩은 Kanye의 초기 스타일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소울 차핑 비트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앨범에서 장르적으로 가장 완벽한 순간을 장식한다.



그리고 게임의 재능은 분명 상업성이란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돈 벌리는 갱스터 랩과는 다른 결의 MC이고, 중독적인 흑을 만드는 재능도 부족하다. 힙합 클래식들의 제목을 인용한 인상적인 워드플레이의 "The Documentary"를 제한다면, 앨범에서 인상적인 흑은 모두 50 Cent의 차지다. 때문에 더 게임이 <The Documentary>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바로 랩 음반으로서 영혼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의 샤라웃 대상에 서부만큼이나 동부 인사들이 잘게 언급되는 만큼이나, 게임의 펜 게임은 통상 서부의 그것보다도 더 화려한 동부 래퍼들의 표현에 유사하기도 하다. 정통 갱스터 힙합을 표방하는 그의 갱스터리즘이 더욱 극적일 수 있는 일순위의 이유다. 이 상당한 깊이의 서정성은 무엇보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이름의 걸출한 클로즈 트랙에서 빛을 발한다.

결과적으로 <The Documentary>는 웨스트사이드 힙합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Hate It Or Love It"과 "How We Do"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힙합 명곡이 되었으며, 향후 컴튼에서 또 한 명의 랩스타가 탄생할 때까지 LA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상업적 성과를 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고향을 평생 등지고 외로이 투쟁할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2024

기타 정류 결산



20. Ten Total - 1010benja

2024.03.22 / Alternative R&B, Alt-pop / SRUKSAN

올해로 34세가 된 1010벤자(1010benja)의 첫 LP, <Ten Total>은 시작부터 억압된 자신의 상태를 표출한다. 마이크에 내지르는 무의미한 소리와 FX 폭발, 총소리 효과음, 이와 어울리지 않는 장엄한 스트링 세션이 출격을 앞두고 있지만, 이는 불확실로 가득찬 화자의 심리를 상반되게 대변한다. 비록 소극적이지만, 그는 한발 한발 껍질을 깨고 하이브리드 컨셉을 선보인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다채로운 프로덕션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성의 조화는 일정 수준 이상을 담보하는 그의 탄탄한 기본기를 짐작하게 한다. 아마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1010벤자는 절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없을 테다. <Ten Total>은 그렇게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그들을 흉내냄과 동시에 우물 안에서 스케치만 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수작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I Can"과 같은 트랙에서 보여지듯 명성을 향한 그의 열망은 점점 커져가지만, 원래 늦게 개화한 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19. Songs of a Lost World

2024.11.01 / Gothic Rock, Alternative Rock /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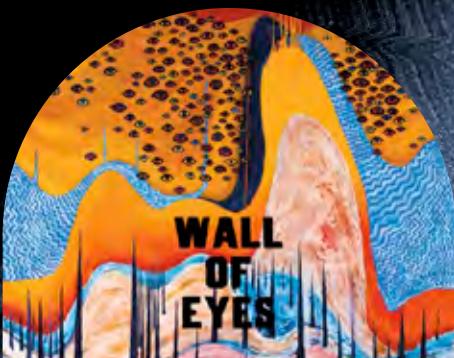
더 쿠어(The Cure)의 컴백은 분명 올해 음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걸출한 명반들과 함께 80년대 락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이들이, 약 13년의 공백기를 깨고 마침내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앨범 발매 솔직을 들었을 때 필자는 이가 훌륭한 웰리티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렇듯, 나이를 먹어갈수록 전성기 때에 비해 부족한 작품들을 발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니까. 그러나 <Songs of a Lost World>는 아니다. 본작은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껏 발매해온 작품들 중 가장 훌륭한 측에 속한다. 이들은 50대가 되었지만, 30년 전에 품었던 낭만과 패기를 여전히 갖고 있다. "Alone"과 "Endsong"이 주는 감동을 보아라. 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 준다.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낭만,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큐어는 본작을 통해 다시금 증명해 보인 것만 같다.



18. Midas - Wunderhorse

2024.08.30 / Indie Rock, Alternative Rock / SRUKSAN

<Midas>가 간직한 특유의 쿨함을 사랑한다. 기교 없이 가장 담백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톡 보여주고 자리를 뜨는 — 사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원더호스(Wunderhorse)의 미감. 같은 공간에서 공명(共鳴)하기를 바란다는 제작 의도에서부터 드러나듯, 레코딩 세션부터 합주 · 첫 프리미어까지 — 우리는 폐쇄적인 어딘가에 갇혀 이들에게 완벽함을 강요받는 듯하다. 러프하다기엔 깔끔하고, 칙칙하다기엔 깨끗하다! 제대로 된 세션은 본작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더호스가 보여주는 절제력은 이미 술한 베테랑 뮤지션들을 연상시키 고도 남는다. 빛바랜 순간들을 더 바래지게 만들어, 외려 반짝거리게 만드는 이들의 마법, 말 그대로 '끝내주는' 작품이라는 타이틀은 올해 <Midas>에게 가장 어울리며 / 스스로와 세상에게 가지는 환멸감 역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지(Grunge) 정신의 아주 빼어난 수작이 찾아왔다.



17. Wall of Eyes - The Smile

2024.01.26 / Art Rock, Post-Rock / SRUKSAN

더 스마일(The Smile)은 조금 더 고요하고 아방가르드하며 침착하다. 우울의 농도는 짙어져 기체로 승화되고, 개개인의 내막은 더 육 촘촘해진다. 총 두 갈래의 디스크로 나눠진 <Wall of Eyes>는 치밀한 탐구 섹션과 신나는 기술 섹션으로 구성돼있다. 피날레, "Under Our Pillows"를 넘어서면 "Friend of a Friend"에서 잠시 지속될 평안함이 3의 눈들을 감싸고, 네오 사이키델리아(Neo-Psychedelia) 요소가 두드러지는 "I Quit"에서는 혼을 육체에서 탈피시키어, 현실을 위한 벌충의 요소로 꿈을 소모한다. 어떠한 경지에 오른 이들을 그토록 예찬하는 이유란 그 경계가 몹시 희미하다는 것에 있다. 꿈과 현실, 정신과 육체. 이들에게 해방이란 신적 요소가 아니다. 자유롭게 도나들며 아름답지만 위험하게도 여겨지는 그 기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감히 넘보지 못할 영역을 송구스럽게도 허가해 준다.



16. "NO TITLE AS OF 13 FEBURARY 2024 28,340 DEAD" - Godspeed You!

Black Emperor

2024.10.04 / Post-Rock / 자카

NO TITLE AS OF 21 DECEMBER 2024 46,800 DEAD. 어떻게 보면 매 앨범마다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야심 차게 녹여내던 갓스피드 유! 블랙 엠페러(Godspeed You! Black Emperor)가 2024년 올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2023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그 원인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전쟁은 현재 그저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변질되었으며, 매주 수천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 이들은 본작 <"NO TITLE AS OF 13 FEBURARY 2024 28,340 DEAD">에서 밀도 높은 사운드들로 지구 건너편의 우리에게까지 전쟁의 공포를 온전히 전달한다. 이전 작품들과 유사하게 강렬한 드론과 오케스트라적 요소를 결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거대한 서사와 그 안에 담긴 감정적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만들며, 동시에 인류에게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포착한다. 본작은 분명 올해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기억될, 사무치게 아름다운 작품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학살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할 때이며, 희망이 사라져서는 안 되니까.



15. Bright Future - Adrianne Lenker

2024.03.22 / Singer-Songwriter, Contemporary Folk / 자카

아드리안 렌커(Adrianne Lenker)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항상, 여러 의미로 매번 놀라게 된다. 그런데 <Bright Future>에서 그녀의 가사는 어딘가 다르고,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Real House", "Ruined". 이 두 트랙을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도록 하자. 긴장감의 명확한 해소 없이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본 트랙은 렌커의 어머니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녀의 울음을 처음 본 순간에 대한 가슴 아픈 묘사는 지금껏 그녀가 써 내려온 가사 중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Ruined"는 어떠한가. '파괴'로 묘사될 수 있는 본 트랙은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자신을 삼켜버린 관계에 대해 노래하며, 이가 끝나 파괴된 이후에도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렌커의 음악은 우리가 가진 평범한 감정들과 경험마저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부여한다. 어쩌면 이따금씩, 아드리안 렌커와 같은 가수들이 노래하기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럼에도 아드리안 렌커는 항상 여전하다. 우리를 눈물짓게 만들고, 따뜻한 위로를 선사해 주고, 동시에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항상 여전하다. 또 여전할 것이다.



14. wetdream - Willyrodriguez

2023.12.24 / Noise Pop, Indie Rock, Emo / 자카

윌리 로드리게즈(Willy Rodriguez)는 듀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정보가 없다. 이들의 무시무시한 <wetdream>은 정말이지 여러모로 엄청난 작품이다. 매우 거칠고, 산발적이며, 또 다채로운데 — 본작을 청취하다 보면 *Have a Nice Life*의 <*Deathconsciousness*>, *The Cure*의 <*Disintegration*>, *Car Seat Headrest*의 <*Twin Fantasy*> 등 수많은 작품들이 연상된다. 그러니까, 본작은 노이즈 팝, 인디 록, 파워 록, 드림 팝, 포스트 락, 쟁글 팝 등 수많은 장르가 적절히 블렌딩되어 앨범의 모든 순간들을 흥미롭게 만들며, 여러 장르들의 경계를 허물며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 그들의 존재감을 뇌리에 똑똑히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와 보컬의 특이성도 앨범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데에 일조한다. 가사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달리 너무나도 직설적이어서 깊은 인상을 남기며, 호소력 짙은 보컬 역시 우리를 흐느끼게 만든다. <wetdream>은 노이즈와 디스토션, 그리고 수많은 실험들이 수놓여있기에, 단 한두 번의 청취만으로 본작을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wetdream>은 정말이지 다른 앨범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다. 본작에는 무엇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베이지색의 신비로움이 존재한다. 열망으로 가득 차있던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충격을 주며 우리의 곁을 떠났다. 나는 지금 이들이 남기고 간 유산과 감동에 경의를 표하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린다.



13. I Got Heaven - Mannequin Pussy

2024.03.01 / Indie Rock, Punk Rock / SRUKSAN

밴드명, 마네퀸 푸시(Mannequin Pussy)처럼 원초적이다. 바보 같은 파찰음의 난사, 픽 손짓만 하면 쓰러지는 몸뚱어리. 슬슬 꼬챙이가 달궈질만하면 앨범은 급작스레 종료된다. 말 그대로 의외성의 연속, 그럼에도 번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밴드가 지닌 본능이 날 것이라는 뜻이다. <*I Got Heaven*>의 가장 훌륭한 점은 여러 장르의 혼합을 거쳐, 밴드 본연의 유니크한 질감을 형성하는 성취를 일궈냈다는 것이다. 슈게이즈(Shoegaze), 파워 팝(Power Pop), 노이즈(Noise) 등의 동일 결들이 난폭하게 뒤섞여 있지만 전혀 이질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특히 5번 트랙 “*Sometimes*”에서 그 성취가 두드러진다. *Pitchfork*의 평가는 분명 과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경계를 자극해내고 건드려주는 훌륭한 앨범임에는 틀림없다. 언제나 속도감 있는 BPM에 차용되는 게이즈는 굉장히 자학적이며, 이들은 제대로 그 지점을 간파해냈다.



12. YY - Amaro Freitas

2024.03.01 / Post-Minimalism, Third Stream / SRUKSAN

강박적인 폴리리듬(Polyrhythm)에서 엿보이는 불안정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탐구자는 조금 더 초월적인(비문명화된) 세계로 떠난다. 브라질의 피아니스트 아마로 프레이타스(Amaro Freitas)는 건반을 메인 캐릭터로 활용한다기보다, 군락의 일부에 불과한 서브 텍스처로 좌천시킨다. 어쩌면 자신과 병치되기도 하는 도시의 엘레강트한 악기 군(群)을 최대한 겸손하게 누그러뜨려놓은 뒤, 그 안에서 감히 누리는 혼돈과 고양감 · 평강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려 애쓴다. 억눌러진 본성은 밀림에서 마음껏 표출되기도, 체념한 채 가만히 공중에 몸이 맡겨지기도 하지만 Shabaka와 함께한 엔딩 “Encantados”에서 그는 결국 만족을 되찾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주를 개시한다. 자연에서 배운(끝내 해소시킨) 매혹들이 다운타운으로 운반된 뒤, 체내와 섞여 비로소 온전한 ‘아마로 프레이타스’로 자리 잡은 것. 막바지에 다다르면 온몸의 찌든 때가 말끔히 빼내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11. SMILE! :D - Porter Robinson

2024.07.26 / Electropop, Indietronica, Indie Rock / 자카

<SMILE! :D>는 ‘웃어봐!’라는 — 지극히 포터 로빈슨(Porter Robinson) 다운 — 앨범의 제목과 함께 반짝이는 신스와 유쾌한 멜로디와 가사들로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듯하지만, 곧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여러 깊은 이야기들을 펼쳐내며 자아를 돌아보는 과정,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몸부림들이 트랙들 사이사이를 부유하는 작품이다. 포터 로빈슨은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꺼내 보이며 그의 무게와 밀도, 또 아름다움을 측정하며 지금껏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로의 말을 건넨다. <SMILE! :D>는 마치 삶의 축소판 같다. 웃고, 춤추고, 넘어지며 다치는 순간들을 기억해야 ‘웃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본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품이다. 본작에 칠해져있는 모든 감정의 진폭과 좌절, 그리고 성장은 철저히 포터 로빈슨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다. 그러나 포터 로빈슨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자극한다. <SMILE! :D>는 웃음을 통해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통해 웃음을 이해하는 여정이다. 그의 음악은 곧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음악은 곧 나의 삶이었으며, 그의 음악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이었다.



10. Night Palace - Mount Eerie

2024.11.01 / Slacker Rock, Avant-Folk, Post-Rock / SRUKSAN

<Night Palace>, 궁전. 어딘가 도피하고픈 누군가의 욕망이 파티클을 흘리며 전시돼 있을 법 하지만, 필 엘브럼(Phil Elverum)이 마운트 이어리(Mount Eerie)의 명의로 찾아 헤매는 것은 현실에서 완전히 유리된 세계가 아니다. 초기 음악으로의 부분적 회귀를 통해 표현된 내세를 향한 탐구 의식, 그는 이 콜라주 자화상을 통해 — 스스로를 자축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유동하는 이들을 동시에 찬미한다. 그 어느 완성된 것 하나 없는 드리핑(Dripping) 덩어리지만, 모든 도안에서는 아이 같은 순수함과 무모함이 물씬 느껴진다. 어떠한 닷(Dot)에서는 분노로 가득 찬 노이즈를 내지르고 다른 장표에선 진중히 시구를 읊기도 하며, 간혹 약간의 유머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투박하지만 섬세하고, 겉은 맥시멀리즘으로 무장된 듯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소박한 이 흥미로운 앨범은 - 마운트 이어리 명의로 투척할 수 있는 인간사와 자연사의 가당치 않은 융합 시도이다.



9. Sky Hundred - 파란노을

2024.02.16 / Indie Rock / 자카

펜타포트 공연 도중 갑작스럽게 발매된 <Sky Hundred>는 자기혐오와 불행을 노래하던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으로 회귀하려는 듯한 사운드가 담겨있으나, 동시에 파란노을은 그를 그저 한시의 '환상'으로 규정하며 빛을 바라본다. 푸른빛의 "주마 등"이 스쳐간 후 일제히 폭발하는 "황금빛 강", 파란노을의 전부를 총집합시켜놓은 듯한 14분의 대곡 "Evoke Me", 더욱 흐릿하고 또 넓은 시각에서 눈물을 훔치게 만드는 "Maybe Somewhere"과 "환상"까지. <Sky Hundred>의 매번 매초는 우리를 완전히 봉괴한다. <Sky Hundred>의 주된 비판의 논지는 '전자 <After the Magic>에서 보여주었던 풍성한 악기 구성은 사라졌고, 노이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했던 탓에 앨범에서 의도되었던 바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필자는 성숙함이 단지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가장 날아올라야 할 시기에 오히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그는 자신만의 음악 — 즉 존나게 시끄러운 '파란노을 음악'을 더욱 명확하게, 또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파란노을은 <Sky Hundred>에서 자신의 뿌리이자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주었던 이들, 그리고 수백의 자신과 수백의 그대, 또 수백의 우리를 향한 현사를 바친다.



8. Where we've been, Where we go from here - Friko

2024.02.16 / Indie Rock / 자카

인디 록에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프리코(Friko)의 데뷔 앨범 <Where we've been, Where we go from here>는 여러모로 00년대 초반을 강타했던 Arcade Fire, Wilco, Grandaddy 등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들은 한껏 냉소적인 태도로 개인적인 고백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한다. "Chemical"의 날선 에너지와 "For Ella"의 아름다움을 보라. 모든 트랙이 킬링 트랙인 본작은 여타 다른 작품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본작이 선사하는 파괴적인 카타르시스는 우리로부터 하여금 이들의 음악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한다. <Where we've been, Where we go from here>는 현재와 과거의 인디 록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리코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청자에게 깊은 사색과 고민을 요구한다. 그들은 올해 최고의 감정적 깊이와 역동성을 보여주며 2024년 최고의 신예의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7. Imaginal Disk - Magdalena Bay

2024.08.23 / Synthpop, Neo-Psychedelia / 자카

성충원기(imaginal disc)란 곤충 유충의 일부가 되며, 이후 변태 과정을 거치며 날개, 다리, 더듬이로 발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막달레나 베이(Magdalena Bay)의 어마 무시한 두 번째 정규 앨범 <Imaginal Disk>에서 이는 초월의 의미로서 사용된다. 전작 <Mercurial World>가 동환적이고 감각적인 팝 음악을 통해 갈망을 그려냈다면, 본작은 변화의 본질과 자기 초월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더욱 넓어진 스펙트럼으로 아름답게 그려낸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시로 앨범의 핵심 트랙인 "Death & Romance"의 경우 프로그레시브한 신스 사운드와 Mica Tenenbaum의 매혹적인 보컬을 보자. 환상적인 장르 변주, 환각적이고 중독적인 멜로디와 흥겨운 리듬. Mica와 Matthew는 <Imaginal Disk>의 모든 순간을 매우 정교하고 밀도 있게 설계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Imaginal Disk>는 마치 동물이 탈바꿈을 하여 완전한 육체를 얻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놀라운 작품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낼 것이며,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를 향해 최면을 걸어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는 바로 막달레나 베이이다.



6. You Won't Go Before You're Supposed To - Knocked Loose

2024.05.10 / Metalcore / SRUKSAN

밴드의 팬덤, 이를 넘어 해당 장르의 코어 향유층, 메탈을 즐겨 듣지 않는 일반 리스너들조차 모두 납득 가능한 결과물. 가슴이 잘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러한 음악을 뽑아냈다. 작품 그 자체의 뼈대만 놓고 봐도 올해 이토록 잘 응축된 앨범이 있었나? 이토록 개운한 구성이 존재했나?라는 물음에 본작을 넘어설 결과물은 그리 많지 않다. 시작부터 무자비하게 이어지는 가면성 우울감은 27분간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다. 시종일관 무거운 에너지가 방출됨에도 우리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의 방향과 이미 정평이 난 연주 덕, 낙드 루즈(Knocked Loose)는 압축 수준으로 그 응어리를 어느 한 틈새로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조여놓았다. 바깥이 아닌 좀 더 안쪽으로, 방심 없이 모두 메꿔 낸 <You Won't Go Before You're Supposed To>는 24년 상반기 최상급의 파란(波瀾)이다.



5. Diamond Jubilee - Cindy Lee

2024.03.29 / Hypnagogic Pop, Psychedelic Pop, Indie Rock / SRUKSAN

캐나다의 드랙퀸 아티스트 신디 리(Cindy Lee)가 몇 년이 지나도 회자될 매우 특별한 앨범을 발매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요상한 앨범은 유난히 감상적이다. 이질적인 Lo-Fi 믹싱, 과기스러운 2시간의 러닝 타임, 형태를 변환해가며 들려주는 구연(口演). 제작부터 클릭까지 과거의 유산을 재발굴하는 듯한 <Diamond Jubilee>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조각난 파편을 마주하게 하는 듯하다. 마치 Velvet Underground가 가하는 태피스트리(Tapestry)처럼, 신디 리에게는 많은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을 통해 깊이 추락하고, 추락을 통해 냉기를 메우려 한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간청해도 이미 당신은 거대한 사운드스케이프 속에 갇혀 향수 속을 헤매고 있다. 향후 힙나고직(Hypnagogic) 장르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24년 발매되었으며, <Diamond Jubilee>는 한 해를 대표하는 순간이자 문제작으로 뽑혀도 손색이 없는 유령 같은 앨범이다.



4. Cool World - Chat Pile

2024.10.11 / Noise Rock, Sludge Metal / 자카

챗 파일(Chat Pile)의 2번째 정규 앨범 <Cool World>는 마치 인간 속의 끝없는 무채색의 영역을 탐험하는 듯하다. 앨범의 첫 트랙 "I Am Dog Now"가 훌러나오는 순간부터 무겁고 질척거리는 사운드 속에 휘말려 길을 잊게 되는데, 42분간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자아마저 상실된 채로 죄책감과 분노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된다. "Shame"의 멈출 기세 없이 부풀어 오르는 사운드, 날카롭게 현대 자본주의에게 일침을 날리는 "Frownland"까지, 본작을 감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온몸이 뒤틀리며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얻는 것은, 어쩌면 한층 더 선명해지는 현실의 진실이다. <Cool World>는 단순히 부정적 감정과 사회에 대한 비판만을 지속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묻는다. 이 멋진 세상 속의 방랑자인 그대에게.



3. Cascade - Floating Points

2024.09.13 / Tech House, IDM / SRUKSAN

순도 100%의 보일러 룸 스타일 뮤직으로 프로듀싱 된 <Cascade>는 플로팅 포인츠(Floating Points)가 오케스트라, 재즈 스테이지 뿐만 아니라 댄스 플로어 역시 장악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굽어 주다가 평하고 터트린다.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르게 만들더니, 축조한 소우주로 평온히 잠수시킨다. 7분 39초 간 펼쳐지는 "Fast Foward"의 여정은 주도권을 리스너에게 줬다가 다시 빼앗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드럽게 폭탄을 건네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Birth4000"와 같은 뱅어는 어떠한 기교 없이 가장 정석적으로 승부를 걸어 느낌 있는 흥분을 유도해낸다. 드디어 고대하던 진통 테크 하우스(Tech House) 음반이 대가의 손을 빌려 탄생하였으며, 이 기계적이면서 사람 냄새라고는 나지 않는 앨범은 단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유지시킨, 오직 플로팅 포인츠와 같은 테크니션에게서 만 양태 될 수 있는 친숙한 선물이다.



2. plastic death - glass beach

2024.01.19 / Art Rock, Indie Rock, Progressive Rock / 자카

창의성은 수단일 뿐이며, 예술에 있어 '창의성'이 예술가들의 목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가장 잘 준수해오며 항상 독창적이고 대담한 음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틀 안에 구속시킬 수 없는 밴드 글래스 비치(glass beach)가 그들의 대망의 정규 2집 <plastic death>에서 이루어낸 바는 실로 놀랍다. 여러 장르를 한 음반에 융합시켜놓는 것으로 유명한 밴드이니만큼, <plastic death> 역시 Art Rock, Progressive Rock, Math Rock, Post-Hardcore, Emo, Power Pop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되어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사운드를 선보인다. 정교한 드럼 패턴, 추상적인 곡 구조, 독특한 리듬감, 그리고 몽환과 무지개를 넘나드는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선보이는데 — 이러한 끝도 없는 난해함 속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으로 내지 되어 있는 탁월한 멜로디 감각과 중독적인 리프레인들로 청자들에게 최면을 걸어온다. 대담함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 또 정교한 프로덕션으로 빼곡히 채워져있는 본작은 올해 가장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 주었던 탁월한 작품이다. <plastic death>는 응장한 순간들에서 여유를 즐기고, 또 이곳저곳을 유영해나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1. BRAT - Charli xcx

2024.06.07 / Electropop, Electronic Dance Music/ SRUKSAN

온 세상이 BRAT이다. 열척이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앨범 커버 디자인, 하지만 뜯어보면 그녀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다. 근본적으로 <BRAT>은 하우스(House)와 레이브 문화에 기반한 파티 음악에 가깝다. 어찌 보면 메인스트림이 아닌 언더그라운드에서, 특히 힙스터들이 환장할 사운드를 발랄하게 풀어내고 있으니 Gen-Z 세대가 환장할 수밖에!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자유로운 짓거리, 표현이 다소 진부해도 절제된 자기 파괴를 원한 그녀에게 이러한 채택은 최선이었고, <BRAT>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냈다. 아래저래 오버하이프란 말에 동의하지만, 찰리 xcx의 커리어 하이로 충분히 거론될만한 작품이다. 어찌 됐건 이 장르의 유동성을 감지하려면, 좋던 싫던 그녀에게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전자음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 다소 단물이 빠진 느낌이 드는 하이퍼팝의 다음 챕터는 올해 <BRAT>이 집대성하였으며, 이어 나올 무수한 팝 음반들 역시 본작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ZAO의

재마카제

5





Up & Down - Horace Parlan / Blue Note No. 4082

1. The Book's Beat (Booker Ervin) 2. Up and Down 3. "Fugee" (George Tucker) 4. The Other Part of Town (Grant Green) 5. Lonely One (Babs Gonzales) 6. Light Blue (Tommy Turrentine) 7. Fugee [alternate take] (Tucker)

Members

Horace Parlan - 피아노 / Booker Ervin - 테너 색소폰 / Grant Green - 기타 / George Tucker - 베이스 / Al Harewood - 드럼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팔란(Horace Parlan)의 블루노트 레코즈 마지막 앨범. 베이시스트 Charles Mingus가 눈독 들이던 두 아티스트의 협업 - 다른 하나는 색소폰 연주자 Booker Ervin-이 하나의 레이블을 떠나기 전 성사되었다. 기타리스트 Grant Green은 꼭 오르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캄보에서나 자신의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연주자로 성장했기에 피아노, 색소폰과 더불어 기타를 하나의 멜로디 세션 중 하나로 듣는 맛 또한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각 세션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하나씩 수록했는데, 역시 자신의 곡은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일까. 다섯의 호흡도 물론 좋았지만, 본인의 곡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며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Booker Ervin은 다양한 분위기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통해 앨범의 하이라이트를 차지한다. Grant Green 역시 마찬가지. 선명한 연주를 통해 청량함과 느긋함을 동시에 작품에 얹으며 마지막 트랙의 제목처럼 푸르른 색채를 호레이스 팔란의 마지막 악장에 남긴다.

STEREO
THE FINEST IN JAZZ SINCE 1939

92420 BLUE NOTE

Dexter
CALLING.

Dexter Gordon / Kenny Drew / Paul Chambers / Philly Joe Jones



Dexter Calling... - Dexter Gordon / Blue Note No. 4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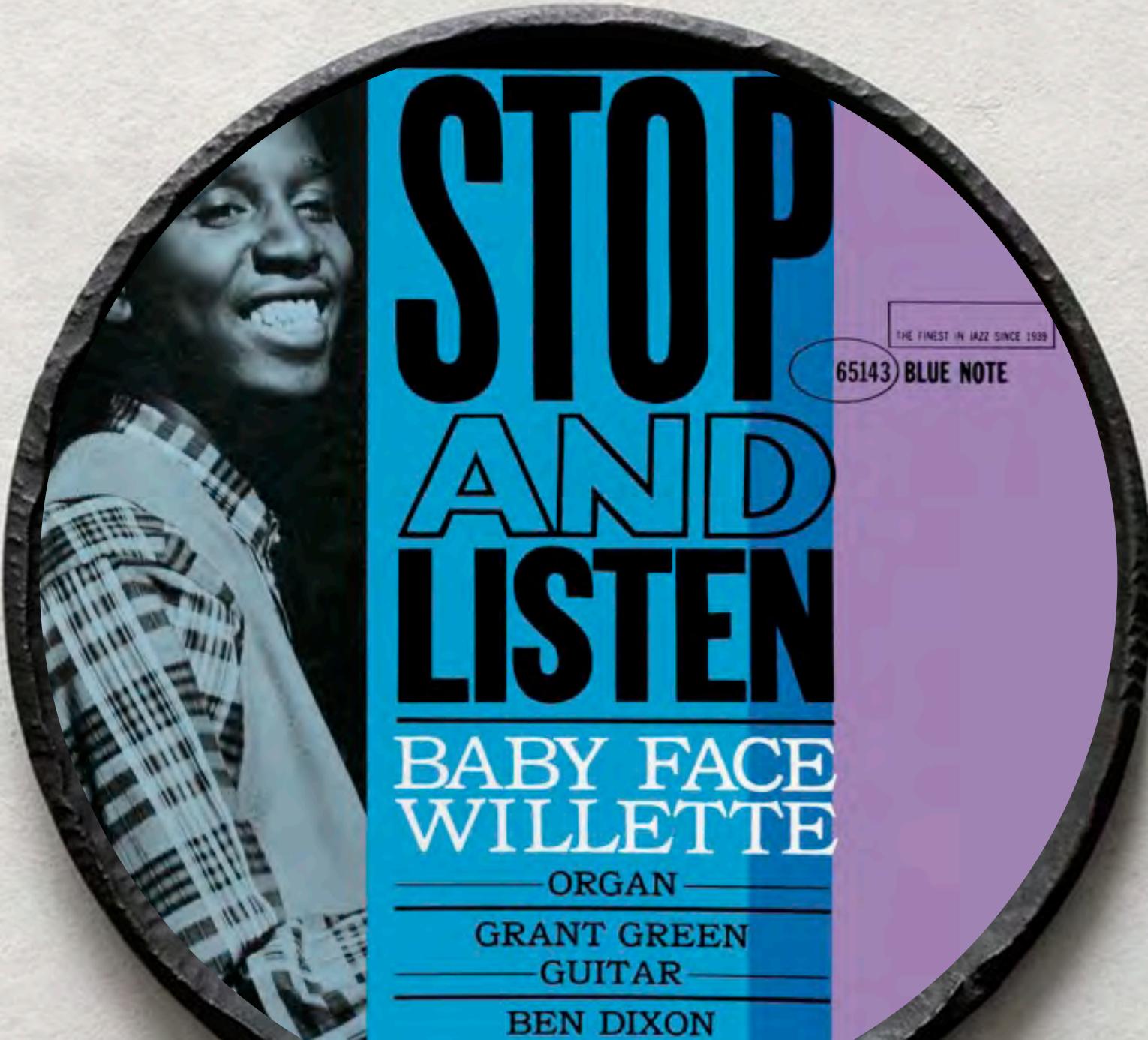
1. Soul Sister 2. Modal Mood (Kenny Drew) 3. I Want More 4. The End of a Love Affair (Edward Redding) 5. Clear the Dex (Kenny Drew) 7. Ernie's Tune 8. Smile (Charlie Chaplin) 9. Landslide

Members

Dexter Gordon - 테너 색소폰 / Kenny Drew - 피아노 / Paul Chambers - 베이스/ Philly Joe Jones - 드럼

찬란했던 뉴욕 르네상스, 짧지만 강렬했던 색소폰 연주자 덱스터 고든(Dexter Gordon)의 뉴욕 방랑기 중 두 번째 작품, <Dexter Calling...>. 화려했던 그의 1960년대 초반처럼 캄보 또한 올스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덱스터 고든과 Kenny Drew의 오리지널, 두 곡의 스탠다드 넘버로 구성된 본작은 멜로디를 중심으로 솔로를 전개하는 덱스터 고든의 장점이 크게 빛 별한다. 특히 아련한 발라드 "Ernie's Tune"에서 선보인 감정적인 톤과 서정적인 선율은 그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경쾌한 Kenny Drew의 곡 "Modal Mood"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퍼포밍을 통해 블루노트 레코즈가 사랑한 하드 밥이 무엇인지 가볍게 보여준다. 하나 항상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터치를 잊지 않던 Kenny Drew의 솔로는 조금 주춤하였는데, 이는 그의 파트가 Paul Chambers의 보잉 반주와 겹쳐 들리기 때문이다. 두 아티스트의 유례한 연주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었으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조그마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두 멜로디 색션의 II-V-I 화음을 바탕으로 하는 크로매틱 진행, 리듬 섹션이 선보인 다채로운 리듬 변화는 이 시대의 하드 밥을 진지하게 해석하였다는 크나큰 매력을 발산한다.

크로매틱 진행 : 반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화음 구성



Stop and Listen - Baby Face Willette / Blue Note No. 4084

1. Willow Weep for Me (Ann Ronell) 2. Chances Are Few 3. Jumpin' Jupiter 4. Stop and Listen 5. At Last (Mack Gordon, Harry Warren) 6. Soul Walk 7. Work Song (Nat Adderley) 8.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 (George Gershwin, Ira Gershwin)

Members

Baby Face Willette – 오르간 / Grant Green – 기타 / Ben Dixon – 드럼

짧지만 강렬한. 블루노트 레코즈에서 단 두 작품만을 남긴 오르간 연주자 베이비 페이스 윌렛(Baby Face Willette). 첫 작품 <Face To Face>에 참여한 색소폰 연주자 Fred Jackson의 부재가 앨범의 역동성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소울 재즈의 정수를 표현하는 데 세 명의 연주자는 그리 적은 수가 아니었다. 원손으로는 베이스에 버금가는 강한 리듬을, 오른손으로는 알터된 화음을 활용하여 풍부한 멜로디를 형성한 윌렛은 도미넌트 7화음을 이에 파생된 변형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긴장과 해소를 자아낸다. 더불어 오르간 캄보에서 필수적인 존재인 기타리스트 Grant Green의 자유롭고 섬세한 표현 또한 앨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멜로디 세션의 수가 적기에 각 트랙은 짧고 강렬하면서도, 퍼모먼스 또한 밀도가 높다. Ben Dixon 또한 윌렛과 Grant Green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며, 두 아티스트가 멜로디와 리듬을 유려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돋는다. 소울 재즈 팬들에게 큰 선물을 남긴 윌렛은 앨범 발매 이후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블루노트 레코즈에서 더는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울 재즈 씬의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Ready for Freddie - Freddie Hubbard (Blue Note No. 4085)

1. Arietis 2. Weaver of Dreams (Jack Elliott, Victor Young) 3. Marie Antoinette (Wayne Shorter) 4. Birdlike 5. Crisis 6. Arietis [alternate take] 7. Marie Antoinette [alternate take] (Shorter)

Members

Bernard McKinney – 유포니움 / Wayne Shorter – 테너 색소폰 / McCoy Tyner – 피아노 / Art Davis – 베이스 / Elvin Jones – 드럼

생동감 넘치는 짧음과 얇볼 수 없는 역량.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허버드(Freddie Hubbard)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블루노트 레코즈에 본인의 등용문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 점차 완숙해진 그는 어느덧 자신을 포함해 여섯 명의 캄보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Bernard McKinney라는 유포니움 연주자를 기용한 것. 트롬본과 튜바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깔끔한 음색을 가진 이 악기는 <Ready for Freddie>가 보다 신선하고 개성 있는 사운드를 갖추도록 돋는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역을 선보이는 세 명의 관악기 연주자 사이로 파고드는 McCoy Tyner의 피아노. 전통적인 하드 밤 배경 아래 모달 재즈의 요소를 더하며 앨범 전반에 걸쳐 독특한 질감을 형성한다. 빠르고 복잡한 코드 변화가 인상적인 "Crisis"와 "Birdlike"와 더불어, 유포니움을 앞세운 발라드에서 경쾌한 템포로 전환하여 마치 두 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프레디 허버드만의 스탠다드 재해석은 왜 그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O

C

E

Z

W



W E I T E R S P I C K



Playthroughs - Keith Fullerton Whitman

2002.10.21 / 감상주의

초기 모델의 신시사이저들에 국한됐던 디지털 시대가 랩탑을 통해 다음 영역으로 확장되던 밀레니엄으로 거슬러 가보자. 오디오 프로세싱에 관한 개념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됐던 시절로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정보 기술의 진보가 더욱 추상적이고 거대해져만 가던 음향 세계에 가져다준 지극히 물리적이고, 가장 환원적인 관점을 인용해 보자는 것이다. 설부른 접근은 본 논의를 다소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맴돌게 한다. 우리에겐 실례가 필요하다. 키스 F. 휘트먼(Keith F. Whitman)의 <Playthroughs>는 다섯 페이지 분량의 논문인 셈이다. 전형적인 앰비언트 드론을 통해 정역학적인 가상의 계를 열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조작'된 신호의 발생과 중첩을 통해 '형성'된 평형이 얼마나 아날로그보다 더 우연적이고 섬세하며,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균일하고 조밀한 필터링과 신중하게 절제된 제스처가 자발적 참여 및 정서적 효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특히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아직도 실수하는 것 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식적인 대입이 아닌 자율적인 상상이다. 그가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동안 자유롭게 고찰하고 심취하며 유희해 보자.

Dead Cities, Red Seas & Lost Ghosts - M83

2003.04.15 / 감상주의

00년대 전자음악 안에서도 Keith F. Whitman의 <Playthroughs>가 유기적인 사인파와 미묘한 미니멀리즘으로 정서를 이끌어냈다면, M83의 <Dead Cities>는 인공적인 톱니파와 장엄한 맥시멀리즘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정반대의 사례다. 저급한 8비트 아케이드 게임을 연상케하는 신시사이저와 드럼 머신은 자신들의 무기적인 성질을 조금도 숨길 생각이 없다. 거칠없는 필터링과 휘황찬란한 레이어링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본작은 전자음악을 향한 열렬하고 드라마틱한 예찬이다. 그의 예찬은 분명 황홀하지만, 환희와는 거리가 멀다. 영화 <올드보이>의 라스트 시퀀스처럼 때로는 처량하며, 찬란한 "Run into Flowers"조차도 막 멸종 위기설이 괴담처럼 퍼지던 꿀벌들이 자신들의 운명적 진실을 앞에 두고 쓰라린 환상을 품고 있는 모습에 이입한 것처럼 들린다. 뒤이은 'In Church'는 마지막으로 신을 찾는 이들의 묵시록처럼 들린다. 빈틈없이 쌓아 올린 전자 슈게이징 장벽을 두고 니콜라스(Nicolas)가 너머에서 외친다. 디지털의 로맨티시즘과 에스카탈로지, 양면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껴있다고. 두 경계가 모호함을 넘어 양립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지금의 버추얼/하이퍼 아트 시대에도 예외는 없으리라.



Music From The Merch Desk 2016 - 2023 - Aphex Twin

Twin

2024.11.15 / 자카

Selected Techno Works 16-23. <Music from the Merch Desk 2016-2023>은 에이펙스 트윈(Aphex Twin)이 지난 7년간 페스티벌에서 발매했던 한정판 바이닐들을 엮어 모아 발매한 컴필레이션 음반이다. 38곡, 2시간 30분에 달하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하는 본작은 에이펙스 트윈이 여전히 독창성과 훌륭한 테크닉을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듯하다. 본작은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을 넘나든다. "Nightmail"은 브레이크 비트와 W.H. Auden의 시를 결합한 실험성이 돋보이는 트랙이며, 미니멀리즘 피아노가 눈에 띄는 "Em2500 M253X" 역시 존재한다. 또한 드릴 앤 베이스에서 벗어나 오직 댄스 플로어를 위한 "Soundlab20"과 같은 트랙들도 흥미를 유발한다. 에이펙스 트윈은 여전히 전자음악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경이로운 페스티벌 세트와 비주얼 아트를 통해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커버부터 내용물까지 모든 것이 익살스럽게 보이는 본작은 그간 그가 쌓아온 8년간의 커리어를 총집합해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FURTHERWORLD - TURQUOISEDEATH

2024.12.20 / 자카

<FURTHERWORLD>는 올해 발매된 터콰이즈데스(TURQUOISEDEATH)의 2번째 정규 앨범 <Kaleidoscope>와 같은 세션에서 제작되었으나 정규 앨범에 포함되지는 못한 트랙들을 엮어 만들어진 EP이다. <Kaleidoscope>의 트랜스 요소에서 벗어나 더욱 원초적인 드럼 앤 베이스의 뿌리로 돌아갔다는 점이 특징인데, 본작에 담겨있는 클래식한 사운드들은 과거의 향수를 자아내기도 한다. "You Are The Reason"이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트랙인데, 본 트랙에 사용된 샘플링은 곡에 장엄함을 불어넣어 주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하우스 뱅어인 "Ocean Wisp"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테크닉을 가진 프로듀서인지를 잘 보여주는 트랙이다.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FURTHERWORLD>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해 준다. 이제는 터콰이즈데스에게는 '장인'을 넘어 '도인'이라는 칭호가 더욱 어울릴 듯하다. 매번 이렇게나 엄청나니.



Negative Spaces - Poppy

2024.11.15 / SRUKSAN

<I Disagree>로 스스로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파피(Poppy)는 추후 NXT의 사운드트랙으로 발매된 <EAT>에서 완벽한 기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메탈 스타로서 확실한 이미지 구축에 들어가는 듯했다. 올해 발매된 <Negative Spaces>에서 그녀는 기어코 굿바이 3루타를 쳐내며, 정면승부를 펼친 Linkin Park를 집으로 양전히 돌려보낸다. 파피에게 찾아온 동아줄은 Bring Me The Horizon의 전(前) 건반이자 얼터너티브 메탈 프로듀서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Jordan Fish, 그녀의 장점만을 추출해 내고 이를 적절히 차용하며 — 특출나지 않아도, 듣기에는 제격인 메탈 앨범을 만들어냈다. "they're all around us"와 "vital", "negative spaces"와 같은 트랙은 파피의 멜로디 메이킹과 Jordan Fish의 테크닉이 만나 선사하는 장르적 재미의 극치이다. 그렇다고 본작이 온전히 Jordan Fish에 의해서만 쌓아 올려진 탑은 아니다. '지옥은 끝이 없어, 증오도 끝이 없어' — "the center's falling out"은 장난이라고는 1도 없는 <EAT>에서의 메탈 퀸 파피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굳이 부드럽지 않아도 여전히 파괴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전시해보인다. 몇몇 트랙을 덜어내고 발매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존재함에도, <Negative Spaces>는 다른 의미로 유해하면서도 귀여운(!) 불량식품 메탈의 정수이다.



Mahashmashana - Father John Misty

2024.11.22 / SRUKSAN

파더 존 미스티(Father John Misty)는 오만하다. 시니컬함, 연극적 특성, 낙관주의 등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보이던 자아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이기적으로 발산하는데, 마치 이들을 <Mahashmashana>(산스크리어로 큰 장례터를 말한다)라는 거대한 화장터에 한 데 모아 단체로 태워버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모두가 '자아의 죽음'이란 현상을 꺼려 하지만, 특히나 선천적으로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난 이에게 이는 치명적이다. 이러한 에고 데스(Ego Death) 현상은 스스로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특히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아버지가 된, 일가족의 구성원이 된 파더 존 미스티는 자아의 죽음을 타인의 손에 양도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Mahashmashana>는 하나의 엄숙하고 소박한, 하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처럼 느껴진다. 말 그대로 지극히 생활지향적이고, '신체'에 충실하려 애쓰는 아티스트 개인으로서의 일기장이자 작별 인사인 것, '마지막 직전이 가장 어두워.'("Screamland" 中)라고 고백하는 그가 마냥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 현실에 순응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냥 비굴하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 애써 주섬주섬 장작을 올리는 그는 숭고스럽게 보인다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보인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NEW

김상주의

자카

denim

moogsick

SONGCHICO

FULL

김상주의

은암

자카

Indie Aisle

ryuzimoto

SRUKSAN

CLASSICS

은암

denim

Indie Aisle

moogsick

FEATURE

동ZA

자카

SRUKSAN

EDITORS' PICK

김상주의

자카

SRUKSAN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khkhomeofficial@gmail.com
@Houseofmatters

